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지원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망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15:00 - 17:00
-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개 회 사 ■ ■ ■

4월도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도처에 푸르름과 화사함이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하였던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은 제2회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지원 환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회의 화두는 새정부가 채택한 제45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제대로 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체험활동 실태와 관련 인프라 현황,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발표회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주5일제와 청소년 활동, 청소년활동시설 평가, 청소년생활실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 결과 공유와 확산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현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15:00~15:10	▶ 개회사 -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5:10~16:30	▶ 발표 및 토론 - 사 회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대외협력팀장)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 발표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발표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지수(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 발표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오승근(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발표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임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6:30~17:00	▶ 종합토론
17:00	▶ 폐회

목 차

발 표 1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1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39

맹 영 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3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57

김 형 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4

-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75

김 희 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1. 들어가는 말: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러한 문제의 해소책으로 도입된, 형식적으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은 형식적 운영 등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교육과학기술부, 2010. 1; 이미숙·민용성·조성기·조덕주·이낙중·김현철, 2007, pp.106-136)를 넘어설 수 있을까?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주 3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 주 4시간 이상 운영되고, 체험활동의 내용이 에듀팟(edupot)에 포트폴리오로 기록·관리된 후,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자료로 활용되니 이전보다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의 여건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직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e Resources Map)를 제작하여 크레존에 탑재하였고, 교육재능기부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아무리 재능이 기부되고 창의체험자원지도를 제공해도 그 자원들이 학교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2012년도 현재 전국에 89개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사례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2013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모든 학교급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교육기부를 잘 활용한 학교사례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잘 활용한 학교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결국 교사에게 업무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김응춘, 2011; 김현철·최창

옥·민정석, 2010).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과 2012년 2개년 간의 연구를 통해 학교 밖의 전문인력들과 전문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1년 1차년도에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에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모형의 시범사업을 서울 및 수원지역 두 곳에서 운영하였다. 코디네이터 기관이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의 시범사업이었다. 2012년에는 시범사업이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라는 이름으로 16개 시도 44개 코디네이터기관 100개 시범학교로 확대·운영되었다.

2012년 시범사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 시범사업」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사회의 연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지 단순히 창의적 체험활동만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의 초점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역사회연계’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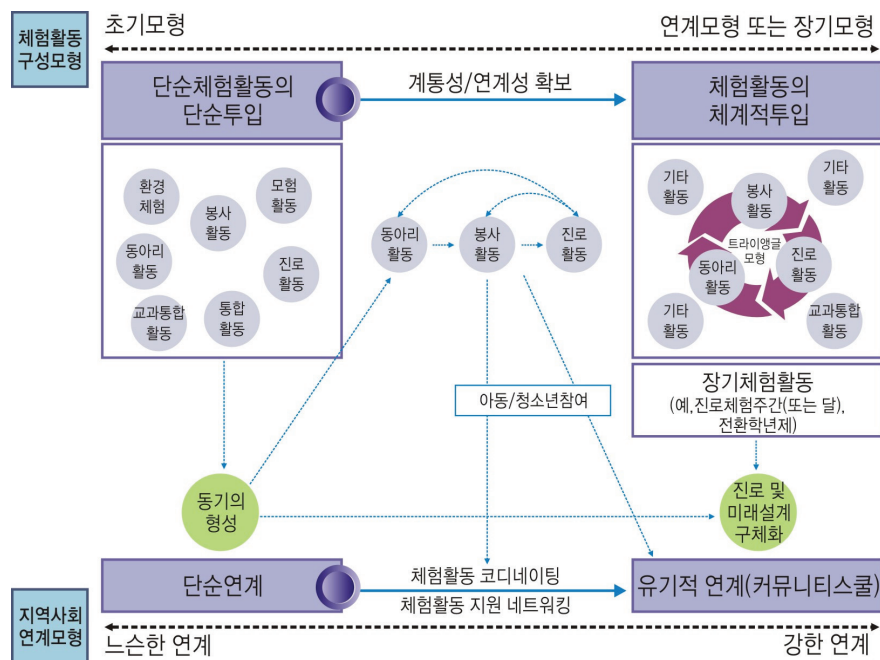
2011년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연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좋을지 가설적인 수준에서 장기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연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 스쿨과 같이 변화되길 기대하였다. 외국사례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김현철·이기봉, 2011; 이기봉·김현철·송민정·윤혜순, 2011; Jeffers, 2002, 2007, 2010, 2011;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 2008).

결국 찾고자하는 궁극적인 모형은 단순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모형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모형이다. 변화의 속도는 더디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먼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례 등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된 지역사회연계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끝으로 개발된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평가함으로써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그림 2-1]과 같이 장기적 발전모형을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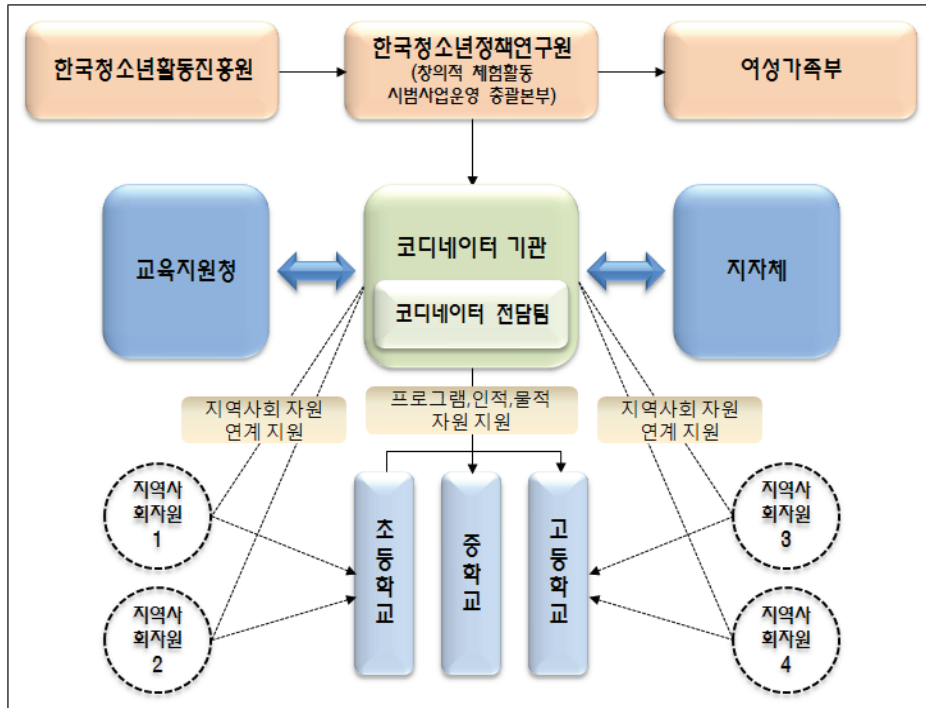


* 출처: 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2011). p.22.

【그림 2-1】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운영을 위한 장기적 발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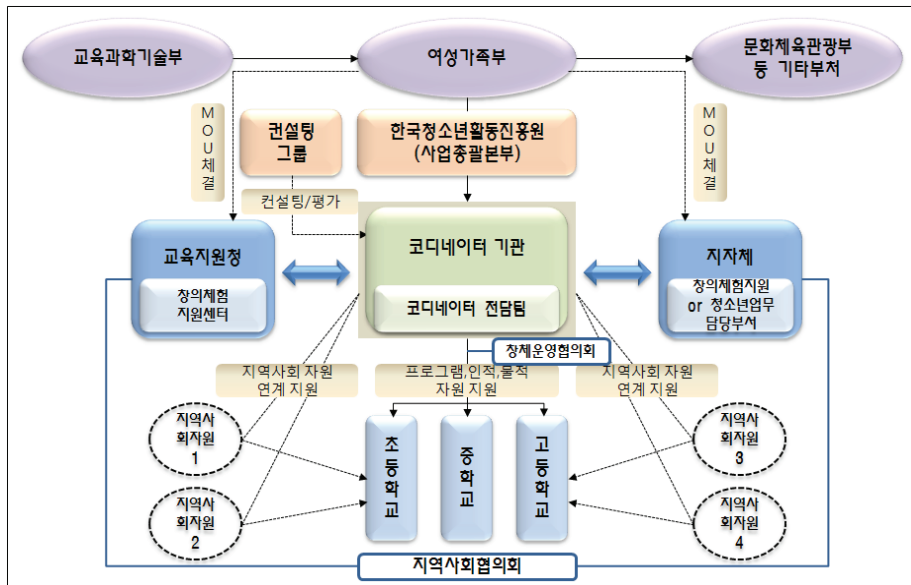
장기적 발전모형은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느슨한 연계(weak tie)’에서 ‘강한 연계(strong tie)’, 즉 유기적인 연계의 형태로, 단순체험활동 중심에서 체계적 체험활동, 각각의 활동이 연계된 활동(예: 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이 연계된 ‘트라이앵글 모형’의 활동),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참여활동 중심으로 이행하며, 이러한 제반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도에 운영된 1차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 자원연계 시범사업」 모형은 [그림 2-1]의 장기적 발전 모형 중에서 초기모형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그림 2-2]와 같다. 코디네이터 기관(청소년 기관)이 시범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 지역교육청은 물론 각종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을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그림 2-2】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2차년도(2012년) 시범사업모형은 [그림 2-3]과 같다. 1차년도 모형과 다른 점은 중앙위원과 지방위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한 점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창체운영협의회’ 및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강조한 점이다.



【그림 2-3】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2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2) 설문조사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시범사업기관(44개 코디네이터 기관 및 100개 시범학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디네이터 기관 조사대상은 시범사업운영담당자이며, 시범학교 조사대상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장 교사이다. 조사내용은 시범사업에 대한 기관 또는 학교의 입장, 변화, 전망, 문제점 등이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생(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조사 표본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와 학교의 지역사회연계정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 사례조사

시범사업기관(코디네이터기관 및 시범학교)을 포함한 학교사례와 청소년기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지역사례와 학교사례를 조사하였다.

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연계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운영 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수준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2012년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한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그들이 재학 중인 학교이다. 표본 설계는 전국의 학생 모집단 5,548,299명(초등학교 1,175,619명, 중학교 1,898,699명, 일반계 고등학교 1,486,941명, 특성화 고등학교 447,070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학교를 층화변수로 고려한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총 300개교(초등학교 102개교, 중학교 84개교, 일반계고 66개교, 특성화고 48개교) 학생 8,5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학교 300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성과 및 한계 등을 밝히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시행 기관(청소년기관 및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에는 총 44개 코디네이터 기관과 100개의 시범학교가 참여하는데, 설문조사에는 37개 기관 및 82개교가 참여하였다.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실태

(1) 전국 수준 설문조사 결과

전국 수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되려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데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8%(그런

편이다 35.2%+매우 그렇다 6.6%)로 나타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9.3%+그렇지 않다 26.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활동이 아직까지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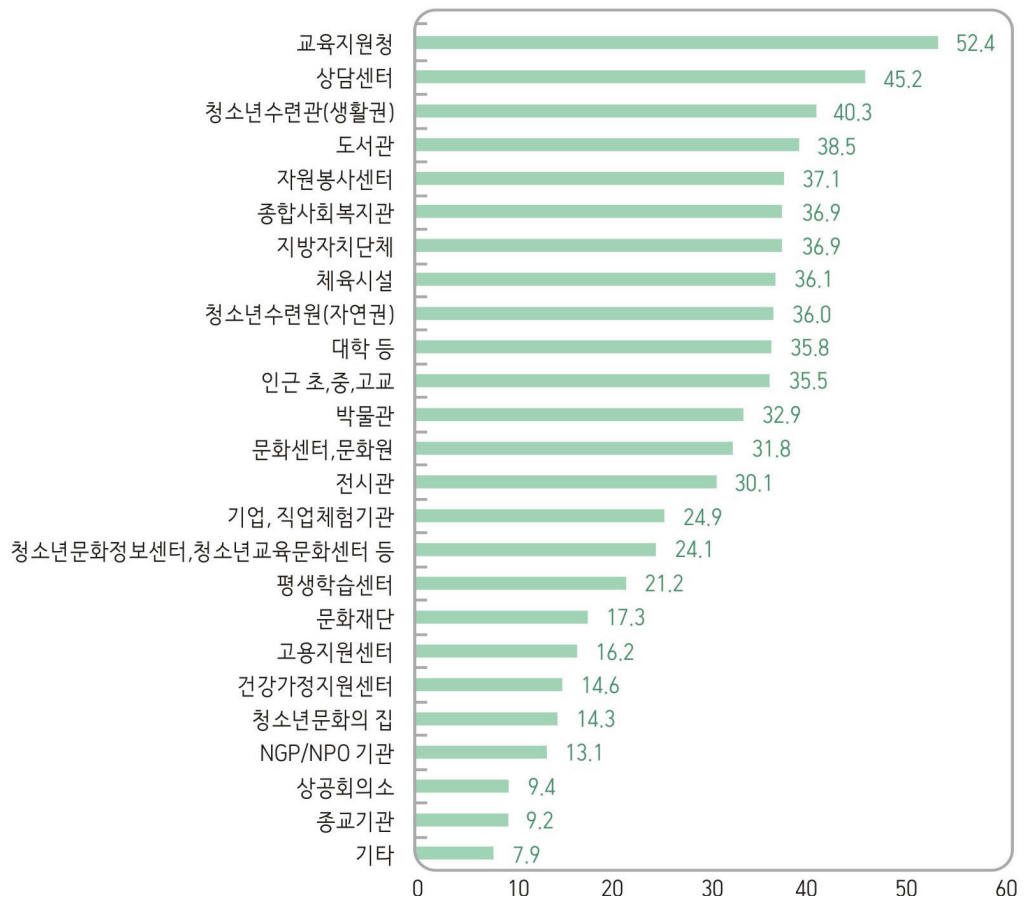
표 3-1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외부의 도움 수혜 여부**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6 (6.5)	28 (30.1)	20 (21.5)	30 (32.3)	9 (9.7)	93 (100.0)	12.18 (d.f.=12)
중학교	13 (12.7)	21 (20.6)	19 (18.6)	42 (41.2)	7 (6.9)	102 (100.0)	
일반계고	6 (7.3)	23 (28.0)	24 (29.3)	25 (30.5)	4 (4.9)	82 (100.0)	
특성화고	3 (12.5)	7 (29.2)	5 (20.8)	9 (37.5)	0 (0.0)	24 (100.0)	
전체	28 (9.3)	79 (26.2)	68 (22.6)	106 (35.2)	20 (6.6)	3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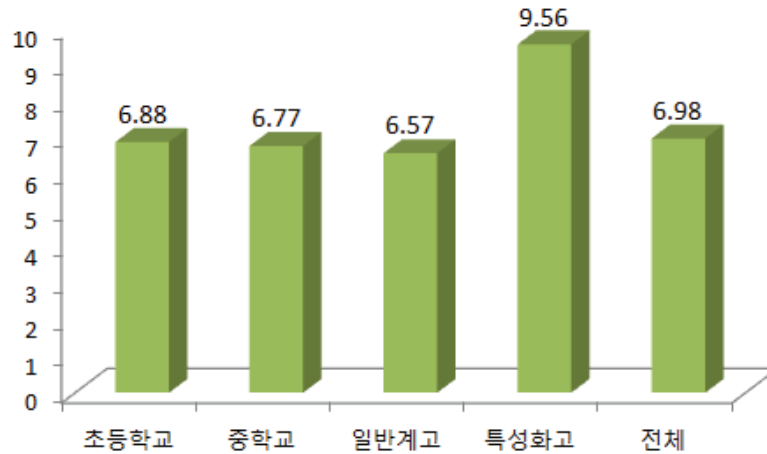
*p<.05, **p<.01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실제로 학교들이 어떠한 기관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 교류하는 기관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학교들이 가장 많이 교류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파악되었다(52.4%).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일선 학교와 어떤 형태로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교육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일선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맺고 있는 네트워크는 학교가 주도하여 발굴한 지역 사회자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가장 연계를 많이 하는 기관은 상담센터(45.2%)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권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40.3%)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도서관(38.5%), 자원봉사센터(37.1%) 등이 주로 연계·협력하는 기관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계·협력하는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

앞서 제시한 25개의 선택지 가운데 개별 학교들이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학교 1개교 당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한 지역사회 자원수는 평균 6.98개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고에서 9.56개로 가장 많은 외부 자원과 연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타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 6.88개, 중학교 6.77개, 일반계고 6.57개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3-2】 학교급별 연계·협력 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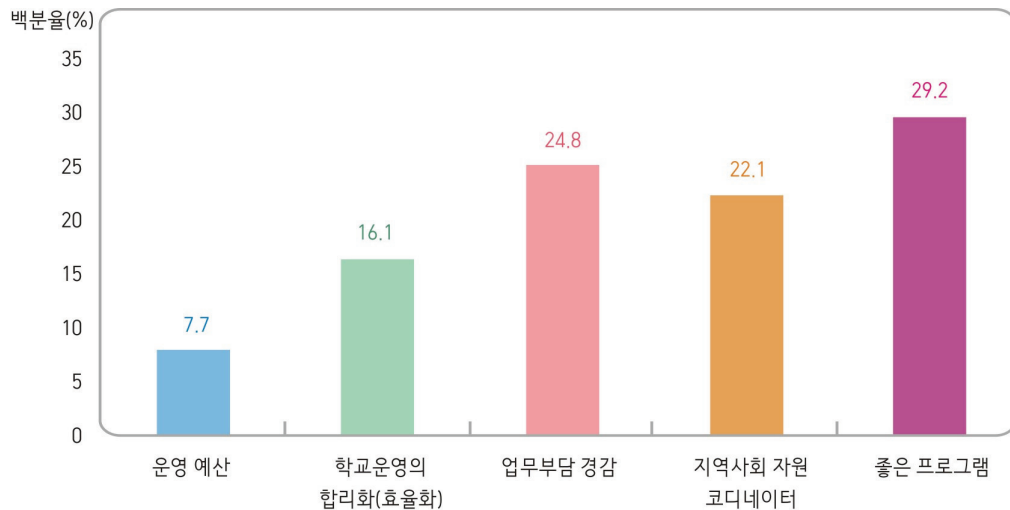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기관 또는 인력이 필요한지에 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6.5%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코디네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급일수록 코디네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 (일반 학교)

학교급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χ^2
초등학교	0 (0.0)	3 (3.3)	7 (7.7)	44 (48.4)	37 (40.7)	91 (100.0)	23.62** d.f.=12
중학교	0 (0.0)	2 (2.0)	11 (11.0)	48 (48.0)	39 (39.0)	100 (100.0)	
일반계고	2 (2.5)	1 (1.3)	11 (13.8)	46 (57.5)	20 (25.0)	80 (100.0)	
특성화고	0 (0.0)	3 (12.5)	0 (0.0)	15 (62.5)	6 (25.0)	24 (100.0)	
전체	2 (0.7)	9 (3.1)	29 (9.8)	153 (51.9)	102 (34.6)	295 (100.0)	

**p<.01

전국 초·중·고교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29.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 부담 경감’이 24.8%로 뒤를 이었고,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2.1%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학교 운영의 합리화(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6.1%, ‘운영 예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7.7%로 파악되었다.



【그림 3-3】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 조건 (일반학교 교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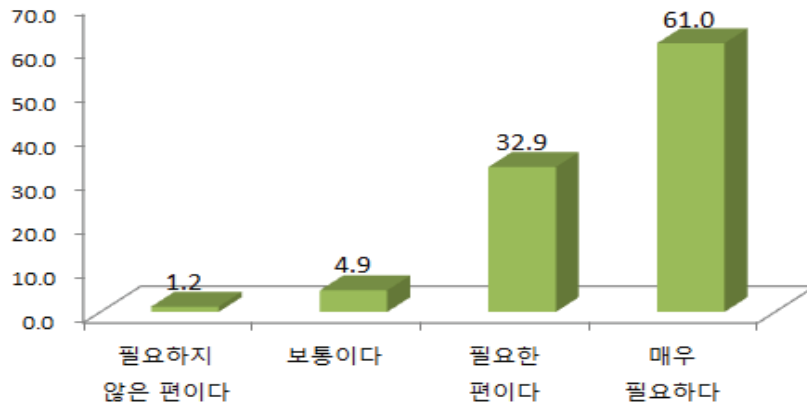
(2) 여성가족부 주최 시범사업 참여기관 조사 결과

① 시범학교의 운영 실태

다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2년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참여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실제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의 응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학교 교사들에게 던졌던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시범사업 담당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조사에

응한 시범학교 담당교사 가운데 61.0%가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이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필요하다’는 응답도 32.9%에 달해,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3.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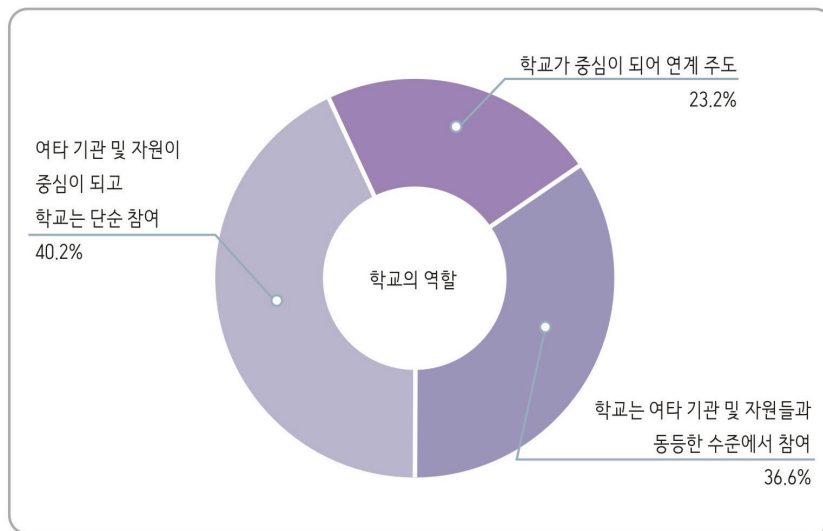
【그림 3-4】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시범학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난 데 비해, 시범사업 참여 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1.0%,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2.9%로 도출되어 시범사업 담당자에게서 강한 긍정 의견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자들이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을 더 깊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3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학교 및 시범 학교 담당자 응답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일반 학교	2 (0.7)	9 (3.1)	29 (9.8)	153 (51.9)	102 (34.6)	295 (100.0)
시범 학교	-	1 (1.2)	4 (4.9)	27 (32.9)	50 (61.0)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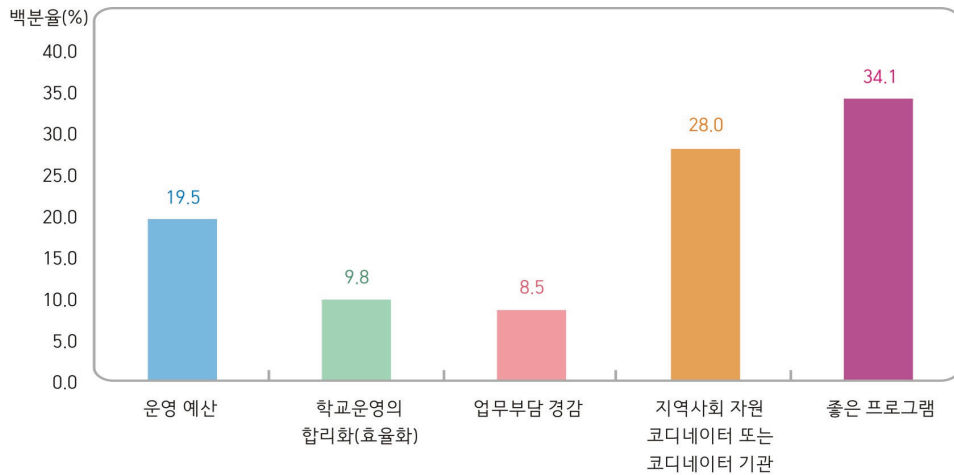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3-5]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때 학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시범학교 담당자들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여타 기관 및 자원이 중심이 되고 학교는 단순 참여’하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으며, ‘학교는 여타 기관 및 자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6.6%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연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그림 3-5】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시 학교의 역할(시범학교)

시범사업 참여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가 [그림 3-6]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일반 학교 담당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34.1%)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28.0%를 차지하였으며, ‘운영 예산’이 19.5%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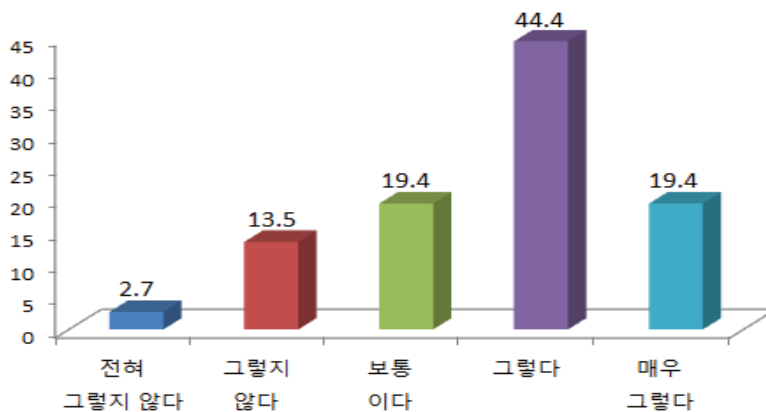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일반 학교 담당 교사들의 설문에서는 ‘업무부담 경감’이 2위를 차지하는 것과 다소 대조를 이룬다. 상술한 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해 본 담당자들이 코디네이터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림 3-6】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 조건 (시범사업 참여학교 교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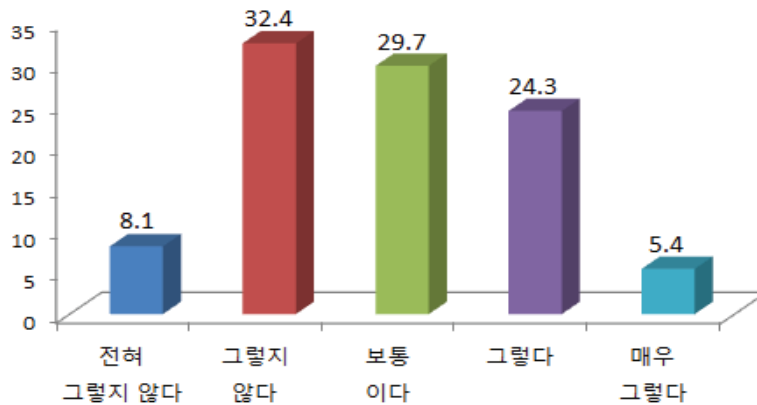
② 시범기관 운영 실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경우, 코디네이팅 업무에 대한 부담감,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 지원 수준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먼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코디네이팅하는 업무가 실무자에게는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더 힘든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63.8%(그렇다 44.4%+매우 그렇다 19.4%), 부정적인 응답 의견이 16.2%(그렇지 않다 13.5%+전혀 그렇지 않다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코디네이팅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7】 지역사회연계 시범사업에 대한 부담감 (n=36)

다음으로, [그림 3-8]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지 조사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29.7%(그렇다 24.3%+매우 그렇다 5.4%), 부정적인 응답이 40.5%(그렇지 않다 32.4%+전혀 그렇지 않다 8.1%)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지원할 때, 청소년 주도적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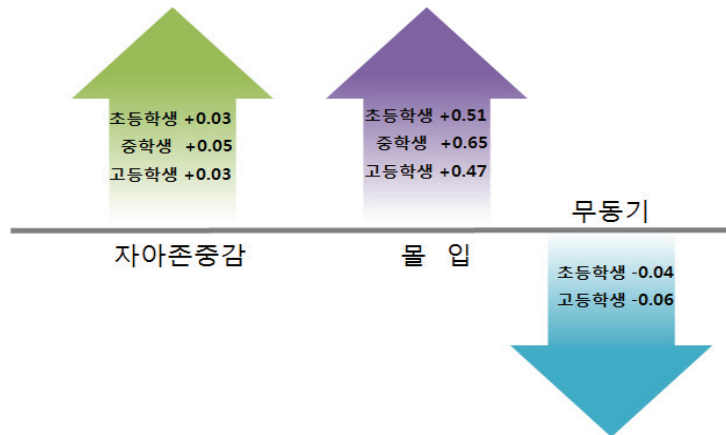
【그림 3-8】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수준(n=37)

3)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몰입수준, 무동기(amotiv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게 그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변인을 투입해 학교급별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으로 간략히 요약한 내용이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은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은 제고하고, 무동기(amotivation) 수준은 낮추는 등 청소년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체험활동의 효과는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지속되어,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무동기 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실 있게 운영되는 양질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성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주¹: 제시된 수치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 결과 산출된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 * 주²: 투입된 통제변인은 성별, 가족구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학업 성적 등임.
- * 주³: 중학생의 경우, 무동기에 대한 회귀계수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 출처: 김현철·황여정(201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37_2012.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3-9】 체험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4. 사례조사결과

1) 시범사업운영평가

가. 시범사업의 성과

2011년 시범사업은 2개 지역 2개 코디네이터 기관, 6개 시범학교가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2012년 시범사업은 전국 16시도 44개 코디네이터 기관, 100개 시범학교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장되었다. 양적으로도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도 개선되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기관에 대한 학교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 ② 학교의 변화를 꾀하려는 학교사례들이 발견되었다.
- ③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위상이 높아졌다.
- ④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청소년 기관의 기능이 변해가고 있다.
- ⑥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 ⑦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이용률이 높아졌다.
- ⑧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었다.
- ⑨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기능이 강화되었다.

나. 시범사업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전향적인 변화가 미흡하다.
- ②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주는 형식의 사업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변화를 유인하지 못했다.
-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학교지원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 ④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과중하였다.
- ⑤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⑥ 시범사업 예산의존도가 높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다.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남겨 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변화를 보이는 확실한 사례를 찾는 것이고 장기적인 발전모형의 실현가능성을 찾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자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다. 시범사업을 총량적으로 보자면,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도 시범사업기관은 대부분 유입되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모범사례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코디네이터 기관은 적어도 학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고,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에 더 익숙해졌다.

가장 큰 관건은 사업의 중심을 학교지원사업에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교지원방식으로는 연계할 수 있는 학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학교도 자생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점진적이지만 코디네이터 기관들의 역량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센터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시범사업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 마디로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은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려는 시점이어서 시범사업의 장기적인 모형에서 목표로 하는 전환학년제나 진로체험주간 등의 사업이 정책적으로는 앞당겨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사회 자원을 코디네이팅하는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고, 시범사업의 의의도 더욱 높아졌다.

2)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1) 학교중심모형(학교장 리더십 모형) 사례

성공적인 학교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학교장의 역할이다. 학교의 전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와 철학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은 학교장의 철학과 리더십이 대부분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많은 것들이 학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학교사례는 이와 같은 ‘학교장 리더십 모형’이며, 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중심모형’이다.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사례도 드물게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리더십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학교중심모형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의 인사이동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사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례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속가능성의 조건들을 발견하였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열정적인 교사
- ② 창의적인 조직
- ③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적·합리적 운영기술
- ④ 체험활동의 효과 요인
- ⑤ 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 ⑥ 예산의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에 더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열정적 교사, 창의적인 조직문화형성, 효과적·효율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법,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예산의 확보 등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교장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교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국과 일본의 몇몇 사례들은 학교중심의 교장리더십모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체험활동의 효과가 기능성의 원천이 된다. 체험활동이 활성화된 학교사례들은 체험활동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직무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체험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리더십과 제반의 요건들이 갖춰진다고 해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한 교사들이 노력이 필요한데, 교과전문가인 교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경우와 지역의 NPO센터가 맡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코디네이터를 맡을 경우에는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된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社会教育実践センター, 2003).

(2) 청소년기관 주도 학교지원 중심 지역사회연계 모형 사례

‘학교장 리더십 모형’은 ‘학교중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자원과 얼마나 연계하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학교사례는 ‘학교중심모형’이다. 2011년과 2012년 시범사업은 ‘학교중심 모형’이 아닌 ‘지역사회연계 모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 다시말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교사가 아닌 지역사회기관(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청소년기관)이 하는 모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추진되었다.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학교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사회연계모형’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자원활용모형’이다. 적지 않은 시범사업기관이 ‘지역사회자원활용모형’에 더 가깝지만, 지향하는 모형은 ‘지역사회연계모형’이었다. 지역사회의 종적, 횡적 네트워크에 의해 청소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케센누마시의 경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김현철 · 이기봉, 2011; 김현철 외, 2010; 이기봉 외, 2011)에 가깝지만, 케센누마시의 경우도 처음에는 ‘학교중심 지역사회자원활용 모형’에서 시작해서 점차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으로 발전해 갔다.

지역사회연계모형은 시범사업과 같이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하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기관이 있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은 국내에는 시범사업 이외에는 없는 모형이다. 즉,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 운영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코디네이터기관은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즉,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기능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관 중 몇몇 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1년 본 연구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은 청소년기관이 코디네이터 기관이 되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학교지원 중심 네트워크 모형’이었다. ‘학교지원중심 네트워크 모형’은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시적인 모형이다. ‘학교지원중심 네트워크 모형’은 다시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지원중심 모형’으로 나뉜다. 어떤 모형이든 코디네이터가 학교 밖의 청소년기관에 있는 모형이다.

첫째,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은 청소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더라도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더라도 단순히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모형이다. 많은 시범사업기관들은 초기모형인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에서는 학교는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시범사업의 시범학교들도 대부분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 때문에 코디네이터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지원중심 모형’은 최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가 보다 넓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형이다. 시범사업기관 중 일부 기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지원중심 모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기관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학교로서는 더 많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형 역시 학교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떤 모형이든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의 업무량은 늘어난다. 물론 이것은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부가적인 업무로 보는 데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식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담팀을 둘 정도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라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기관의 비전에 반영되고,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기관-학교 상호협력형 네트워크 모형 사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청소년기관과 학교와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청소년기관은 학교와의 연계를 어려워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학교와의 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학교가 너무 코디네이터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기관은 지원하고 학교는 지원받기만 하는 ‘청소년기관 주도 학교지원중심 모형’은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관에도 좋지 않다. 시범사업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관계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이다.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코디네이터 기관도 학교도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관과 학교 간의 MOU체결은 관계의 시작일 뿐이다. 학교연간계획 뿐 아니라 학생요구조사도 청소년기관과 학교가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간다. 코디네이터 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관은 학교장이나 교사를 청소년기관의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기관장이나 코디네이터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등 상호간의 공식적인 교류도 상호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디네이터와 교사들이 함께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하는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기관과 교사 간의 연구모임 운영은 상호교류의 차원을 넘어 두 기관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동력이 된다. 시범사업 사례에서 연구모임은 코디네이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며, 교사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a). 교사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

을 개발한 사례도 있다(김일주, 2012).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들간의 상호협력 관계는 지역사회의 더 다양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학교 교사들과의 연구모임을 넘어 공식, 비공식 교원조직과의 연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의 운영 경험을 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과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분적인 시도에 그쳤지만,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기관은 교사들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이 학교나 교사들의 전문성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 사례

시범사업은 청소년기관과 학교 양자 간의 네트워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유형의 모형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에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지역사회협의회와 같은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으로 가는 통로역할을 할 뿐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지역사회협의회 구축노력은 대부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으며, 드물지만 원래부터 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지역도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도 있고,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시범사업의 구상이 반영이 된 사례도 있다. 네트워크가 일단 구축이 되고, 활용되기 시작하면, 점점 네트워크의 범위와 강도가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이 학교에 더 많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한 기관의 코디네이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 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 있으며, 코디네이터로 불리든 아니든 코디네이터는 다양해질 수 있으며, 또 다양해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은 다양한 코디

네이터들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부단히 코디네이터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했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社会教育実践センター, 2003).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디네이터는 두 가지이다. 코디네이터 교사와 지역사회 NPO 단체의 코디네이터이다. 교과 전문가인 교사가 코디네이터를 맡는 것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의 누군가는 반드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학교의 지역사회전문가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담임교사나 기타 교과담당교사가 부분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교사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을 교사들과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슈퍼바이징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사업기관이 대부분이 취하는 방식인 시범사업기관의 코디네이터가 모든 것을 맡는 것은 상호협력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나 지역사회 연계모형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는 기관 단위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코디네이터 그룹을 육성하고, 조직하고, 슈퍼바이징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코디네이터 교사 뿐아니라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모집하여 역량을 계발시켜,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거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가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고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미하나마 일부 시범사업기관 사례에서 발견된다. 적어도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향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이나 가능한 것이기는 하다. 이러한 슈퍼바이저로서의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를 일본 조에츠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마다 많게는 십여명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두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코디네이터기관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력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NPO 그룹은 학교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거나 평상시에는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인력이 양성되고 관리되고, 점점 많은 지역사회 자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시범사업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커뮤니티 스쿨(지역사회학교)모형’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5) 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연계모형 사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형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이지만, 여기에 청소년의 참여가 가미된 모형으로 운영된다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을 ‘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연계모형’이라 부르고자 한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기관들 중에 몇 몇 중요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드물지만 학교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연계모형’은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급단위나 학교단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참여활동은 학급 등 임의적으로 배치된 집단별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관심이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집단, 즉 동아리와 같은 집단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활동은 트라이앵글 모형 활동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동기부여가 쉽게 일어나고, 몰입 경험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교사나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나 지도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든다. 지도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공릉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한 청소년사회참여대회인 ‘시작된 변화’가 좋은 사례가 된다.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 프로그램이다.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활동계획을 직접 세워서 실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활동기획서를 직접 작성한 후 활동이 끝난 후에는 대중 앞에서 보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후 사후활동도 있다. 2011년에는 공릉동 폐선부지에 위치한 음침한 지하 굴다리 벽에 벽화(함께 그린 그림길)를 그린 청소년들, 친구들의 지나친 컴퓨터 게임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한 중1학생들, 어린이 놀이터의 낙서를 지우고, 어린이들이 자주 찾아와 놀 수 있도록 노력한 청소년들, 마을의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청소년,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마을 문화유산을 찾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영어책 읽어주기 활동을 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사서가 되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등 총 10여 그룹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도 크다. 동아리 M&V는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운 과학실험 교육을 초등생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과학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자고 모인 자원봉사 그룹이다. 과학실험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M&V 과학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올해는 신청자가 몰려서 수업 규모를 크게 늘려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공릉동 지역의 자전거 도로 문제를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나와 같이 어린 학생이 우리 동네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시작된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 동네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찾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웠어요.”라고 말한다. 주민 100명을 모아 ‘공릉동 함께 그린 그림길 작업’을 이끌었던 한 여고생은 “이 활동이 나에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준비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라고 말한다. 이들이 함께 그린 그림길은 공릉동의 명물이 되었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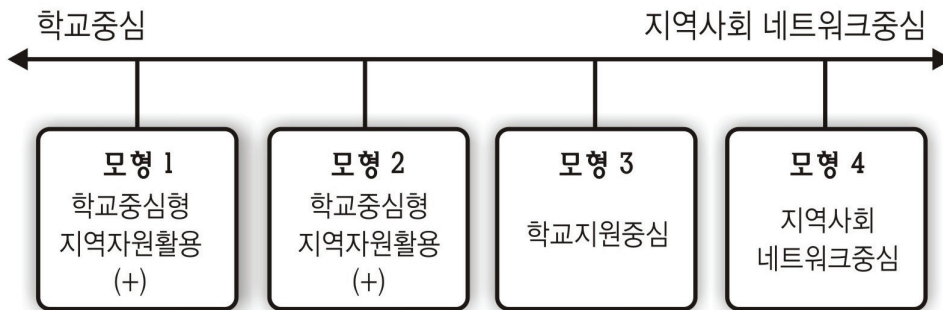
2010년 전라북도에서는 청소년들이 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의 희망의제를 제안하는 「전북청소년희망의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참여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희망을 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였다. 교육감 후보에 정책 제안을 위한 전북 청소년대표단을 구축한 후, 연대회의는 전북지역의 청소년관련 31개 기관단체의 연대체를 구성하여 교육감 후보에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연대회의 구성 및 의제 초안 작업을 하였다. 그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YMCA,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대표, 고교 학생회연합회 등 다양한 청소년대표자들을 구축하였다. 또한 초안으로 작성된 청소년희망의제를 기초로 청소년대표자들과 토론하였다. 청소년들이 제안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전북지역 청소년희망의제 작업 후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하여 답신도 받고,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메니페스토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육감 선거 이후 청소년희망의제 및 공약 검증 작업과 도교육감과 희망의제 및 공약 검증을 위한 간담회까지 개최하였다(정건희, 2012).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변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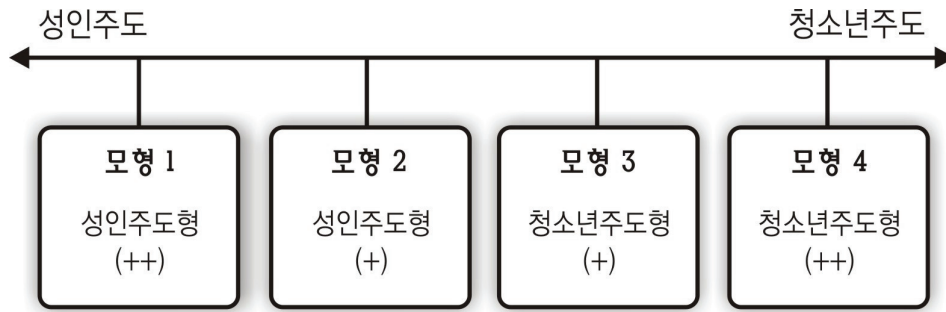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모형은 크게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연계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체험활동 운영이 학교중심인지 지역사회기관 중심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세분 모형을 구안해보면, 모형1은 지역사회자원을 최소로 활용하면서 학교 내부의 인력·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모형이 된다. 그리고 모형2는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자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학교내부 인력이 맡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모형3은 지역사회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지만 주로 학교에 외부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4는 복수의 지역사회기관과 학교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림 5-1]은 상술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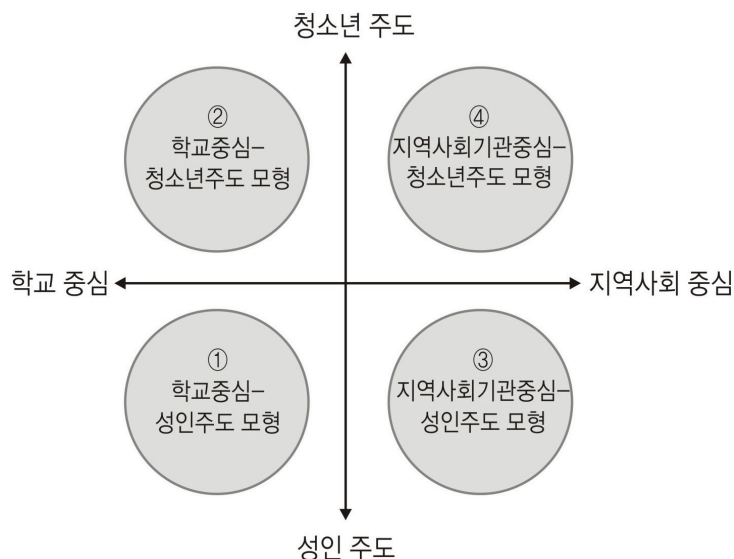
【그림 5-1】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정도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둘째,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를 기준으로 모형을 나눌 수 있다. 이 구분은 델가도와 스테이플스(Delgado & Staples, 2008, p.69)가 제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스펙트럼’을 단순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형1과 모형2는 성인주도형 체험활동이며, 모형1이 모형2보다 성인주도성이 강한 모형이다. 그리고 모형3과 모형4는 청소년주도형 체험활동이며, 모형4가 모형3보다 청소년의 주도성이 강하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청소년의 참여정도에 따른 체험활동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 설문조사결과, 국내외 사례조사결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그림 5-1]과 [그림 5-2]를 조합하면 모두 16개의 모형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16개로 모형을 세분화할 경우, 모형 간 차이가 모호해지며, 그로 인해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간명성(parsimony)이 떨어져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의 변량을 단순화하여, 지역사회연계정도를 기준으로 고(高)-저(低)를 나누고, 역시 청소년 주도성을 기준으로 고(高)-저(低)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2×2의 매트릭스를 통해 총 4개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5-3]에 이러한 모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매트릭스

1) 모형① : 학교중심-성인주도 모형

이 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자원을 연계하고 운영하며 교사들이 주도하는 모형이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형이며, 학교가 주도하는 만큼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 모형을 적용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형①을 적용해서 주로 학교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부담이 적지만, 지역사회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며,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그램의 질만 좋다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주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청소년주도가 아닌 성인주도성이 강할수록 프로그램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학교장의 의지, 교사의 열정과 같은 요인이 잘 조화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같은 모형은 성인주도형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주도형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인주도형의 프로그램은 그 만큼 완성도가 높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교사나 강사 등의 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지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다.

2) 모형② : 학교중심-청소년주도 모형

모형②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활용을 학교가 주도하지만, 교사가 아닌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모형이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규모가 커질 경우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주도성이 높아지게 되면 지역사회자원に対する 욕구도 높아질 개연성이 큰데,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더라도 그것을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운영하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주도하는 모형이라도, 청소년들의 참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연계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모형②의 관건은 교사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신장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할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지역사회의 코디네이터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3) 모형③ : 지역사회기관중심-성인주도 모형

이 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학교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지역사회기관이 맡는 모형이다. 시범사업의 초기모형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모형이다. 또한 프로그램은 성인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투입되면 프로그램의 효과는 향상되겠지만,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주도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칫 프로그램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모형은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업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해지며, 소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교사들은 업무를 덜 수 있어서 좋지만, 이러한 모형은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 학교 역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며, 이런 경우는 시범사업이 끝나거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계방식으로 학교가 변화를 추구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기관중심이라도 학교와는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학교의 변화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역사회기관이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만 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학교지원형이 아닌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으로 사업의 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만일 지역사회기관이 이 같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모형④ : 지역사회기관중심-청소년주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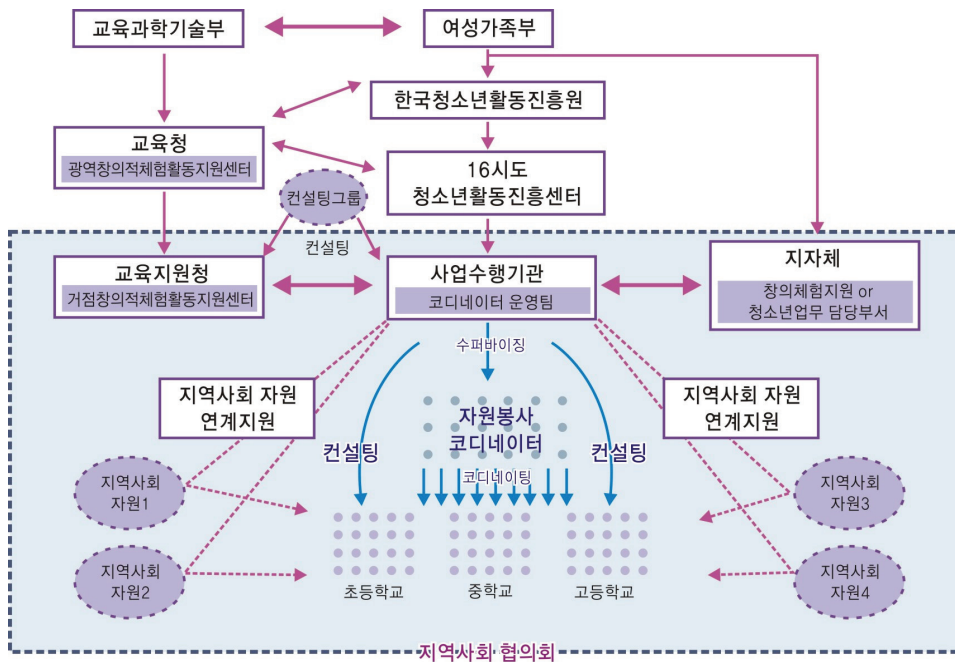
모형④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청소년 체험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기관이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주도로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의 효과도 보다 제고될 가능성이 크며, 교사나 지도자의 업무도 그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주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연한 지도가 가능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사회 변화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강하게 연계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모형④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들이 추구해오지 못했던 두 가지 역할,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청소년 주도형의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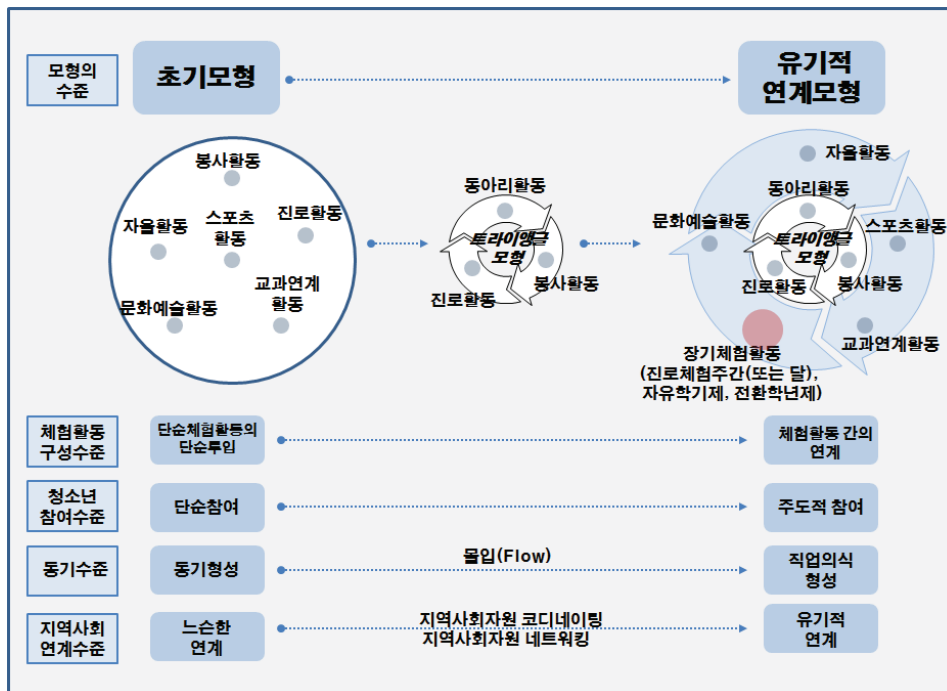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학교중심이나 지역사회기관(청소년기관) 중심이냐의 문제보다는 성인주도나 청소년주도냐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모형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모형이며, 모형③과 같은 학교중심-청소년주도형의 운영모형도 활성화되면 결국 모형④와 같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 그렇게 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모형①과 모형②와 같은 학교중심형의 체험활동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학교만의 자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모형④가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며, 장기적인 발전모형에도 부합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모델 사업」은 모형④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된 사업모형(그림 5-4)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그림 5-4]의 사업모형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체결된 MOU를 근거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형이다. 특히,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또 한 가지 변화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디네이터 기관은 외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디네이터 기관의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변화를 주었다. 코디네이터 기관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를 확충하고, 코디네이터 기관은 슈퍼바이저로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또한 코디네이터 기관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해당 지역 교사들에 대한 컨설팅과 연수에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모형이다.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학교 모두 청소년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모형이다(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그림 5-4】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



【그림 5-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장기적 발전모형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연구에서 김현철이 제안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장기적 발전모형을 수정하여 제시하면, [그림 5-5]와 같다. 2011년도 시범사업모형이 [그림 5-5]의 초기모형이었다면,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도에 추진될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사업」은 초기모형에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연계모형으로 개선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림 5-5]의 과정을 거쳐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가능성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장기적인 발전모형을 ‘모형의 수준’, ‘체험활동의 구성수준’, ‘청소년의 참여수준’, ‘동기수준’, ‘지역사회연계수준’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 초기모형에서 점차 유기적인 연계모형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둘째, 초기모형에서는 체험활동이 단순 체험활동의 형식으로 운영되지만, 점차 ‘트라이앵글모형’과 같이 연계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고, 장기적 체험활동, 예를 들면, 진로체험주간이나 달, 자유학기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와 같은 체험활동도 도입될 것이다.

셋째, 초기모형에서 유기적 연계모형으로 발전해 갈수록 체험활동은 성인주도의 체험활동보다는 청소년 주도의 체험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넷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동기가 형성이 되면, 동아리활동 등 자기목적적인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몰입의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키워가거나 직업의식을 형성해 가는 경험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초기모형에서 유기적 연계모형으로 발전해 갈수록 지역사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이며, 이때 지역사회자원 및 기관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또는 네트워크들의 역할이 활성화될 것이다.

6.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방안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코디네이터 기관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의 협력

코디네이터 기관 역할을 하는 청소년기관은 ‘창의적체험지원센터’ 운영활성화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청소년기관은 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교원대상 연수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가야 한다. 코디네이터 기관은 학교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창의체험지원센터’(또는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부처, 두 기관의 협력이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2)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역사회의 각 청소년기관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컨설팅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2년처럼 시범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청소년활동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및 학교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킹’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및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및 연수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험 자체가 코디네이터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된다. 특히, 청소년지도자, 지역사회 전문인력, 교사들간의 연구모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책

2011년 연구에서도 밝힌 바처럼(이기봉 외, 2011), 시범사업기관의 코디네이터들은 업무과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012년 시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연구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을 위해 코디네이터 전담팀의 운영을 제안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기관이 전담팀을 운영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운영한 경험과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기관장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역사회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은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책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 차원에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지표에서 지역사회연계 사업실적을 보다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밝혔듯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도방법에 청소년지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에서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활동 지도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된다.

5) 예산의 확보

예산의 확보는 청소년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코디네이터 기관의 중요성이 인식되기만 하면,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로부터의 신뢰를 얻게 되면, 학교자부담에 의한 사업운영 가능해진다.

6) 농어촌 지역 네트워크 지원방안 마련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운영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구가 희소하고 지역사회 자원도 부족해서 난점이 많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차량이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임영미 · 김미희 · 조인진, 2012). 따라서 공공 및 민간의 유희차량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시설을 짓는 것보다 차량확보를 통해서 이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식 개발

코디네이터기관은 학교의 요구에 맞춰 자원을 연계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급적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체험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각자의 요구에 맞춰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고, 동아리활동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진로활동이 될 수 있는 방식, 즉 체험활동이 ‘트라이앵글’처럼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된다면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1). 제1회 노원지역 청소년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시작된 변화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0.1).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
- 김응춘 (2011). 교육기부로 '창의적 체험활동'내실 다지기. 2011년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자료집. 1-20.
- 김일주 (2012). 2012학년도 여수YMCA(여수청소년수련관) 학교현장체험학습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계획서(미발행).
- 김현철, 이기봉 (2011). 일본 케센누마시의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사례집.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 매뉴얼 · 우수사례집.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숙, 민용성, 조성기, 조덕주, 이낙중, 김현철 (2007).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지원 연구(V).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임영미, 김미희, 조인진 (2012). 농어촌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영월군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미발행).
- 정건희.(2011). 청소년자치 및 참여활동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53-65.
- 정건희.(2012). 지역청소년참여사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미발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a).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결과보고 및 '13년 사업설명회.
-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委員会(2008). 地域に学ぶ「トライやる・ウィーク」- 10年目の評価検委(報告).
- 国立教育政策研究所社会教育実践センター (2003). 学校における体験活動ボランティア活動のコーディネーター研修プログラムの開発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Delgado, M., & Staples, L. (2008). *Youth-led community organizing: Theory and 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effers, G. (2002). Transition Year Programme and Educational Disadvantage, *Irish Educational Studies*, 21(2). 47–64.
- Jeffers, G. (2007). *Attitudes to Transition Year: 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Maynooth: NUI Maynooth Education Department.
- Jeffers, G. (2010). The role of school leadershi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School Leadership & Management*, 30(5), 469–486.
- Jeffers, G. (2011).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Embracing and resisting a curriculum innovation, *Curriculum Journal*, 22(1), 61–76.

발표 2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맹 영 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1. 연구배경과 목적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월2회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주5일수업제가 2012학년도부터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자율 실시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활동환경이 학교에서 지역사회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결과¹⁾를 살펴보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의 확대는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계획하여 활동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들 대다수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못되었고, 미등교 학생들 역시 가정과 사회에서의 활동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학교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 분석결과²⁾를 살펴보면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지자체나 지역사회와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토요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가족단위의 체험활동 지원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주5일수업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단체나 기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은 학교 밖 청소년활동 지원과 맞물려 있으며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주2일 학교 밖 활동 지원이 주요한 시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1) 오평식(2011). 시범학교운영으로 본 주5일수업제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포럼**, 217, 15-17.

2) 정광희 외(2011). **학교의 주5일수업제 운영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 주요 조사결과

1) 조사개요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관련 인식 및 요구조사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중 청소년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로 비례층화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학부모는 설문대상 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는 면접조사가 병행되므로 보조자료로써의 의미를 지니는 의견조사 수준에서 각급학교 설문 실시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2012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청소년 3,330명, 학부모 1,881명, 교사 113명이었다.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생	설문대상 학생의 학부모	설문대상학교 교사
유효표본수	3,330명	1,881명	113명
조사 방법	우편 조사		
표본 추출	학교급별, 학년별, 지역별 확률표집(비례층화추출법)		
조사 기간	2012년 4월 3일 ~ 4월 30일		

【그림 1】 조사설계

2)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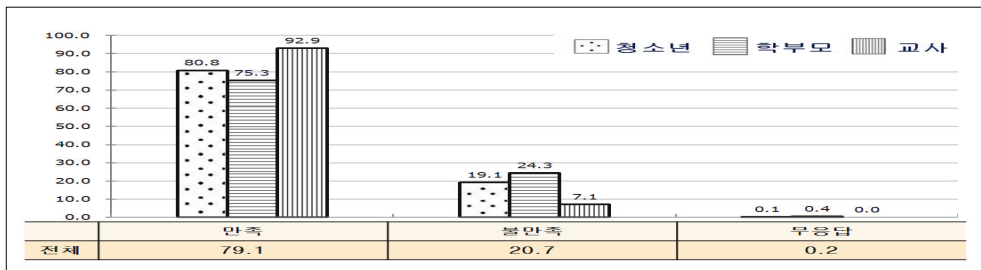
조사내용은 ①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 및 학교·학교밖 주말프로그램 참여수준 ②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시간 이용실태 ③ 지역사회 내 활동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④ 주말활동 관련인식 및 요구수준 ⑤ 인적사항 등으로 조사항목들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기초로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3) 주요결과

(1)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및 이유

①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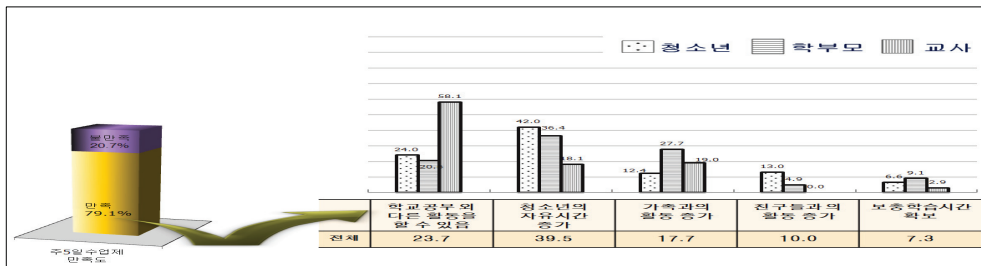
만족수준: 청소년(80.8%)과 학부모(75.3%), 교사(92.9%)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초등학교(87.2%), 고등학교(82.9%), 중학교(72.7%) 순으로, 학부모는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7.5%),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7.3%),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1.2%) 순으로, 교사는 초등학교교사(94.7%), 고등학교교사(94.6%), 중학교교사(89.5%) 순으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②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만족이유: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여가시간)이 많아져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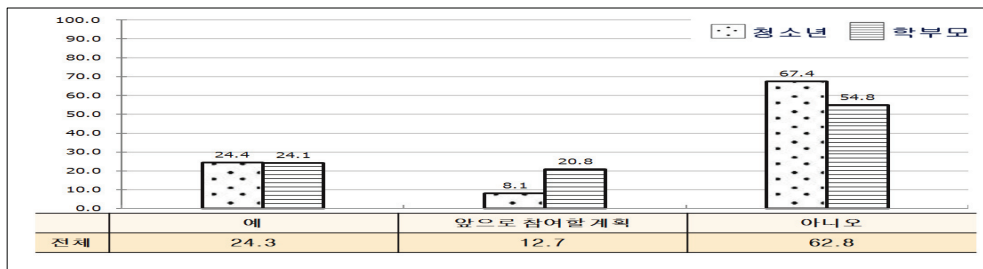
【그림 3】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불만족이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은 ‘주중 수업시간이 많아져서’(50.5%), 학부모는 ‘자녀가 주말에 혼자 집에 있게 되어서’(31.5%), ‘주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27.6%)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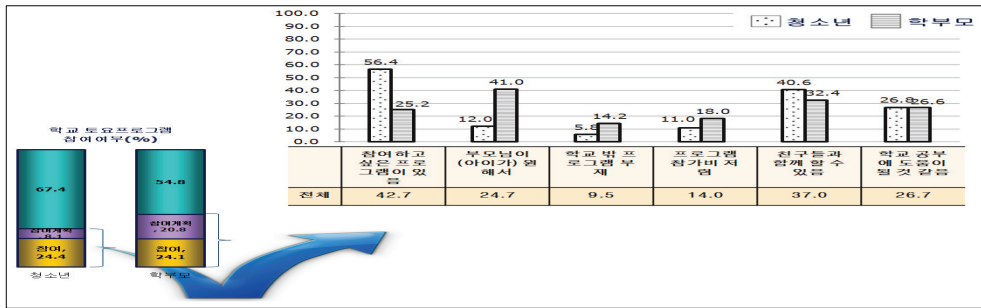
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수준 및 이유

참여수준: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3정도(32.5%)의 청소년이 참여 중이거나(24.4%) 또는 참여계획(8.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과반수정도(44.9%)가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거나(24.1%) 또는 참여시킬 계획(20.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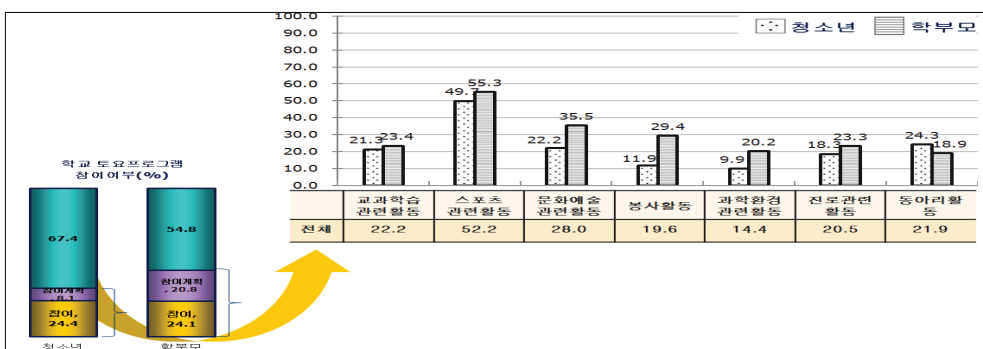
참여이유(중복응답):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6.4%),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40.6%),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6.8%), ‘부모님이 권유하셔서’(12.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51.9%),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49.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가 원해서’(41.0%),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32.4%),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6.6%), ‘프로그램이 좋아서’(25.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40.1%),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0.6%)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하고 싶은) 이유(중복응답)

② 학교 운영 참여 토요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및 만족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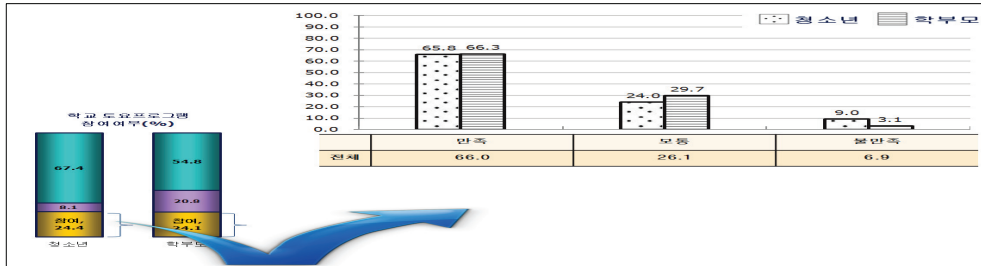
참여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참여중인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학교운영 토요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49.7%)과 학부모(55.3%) 모두 ‘스포츠관련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스포츠관련활동’(49.7%), ‘동아리활동’(24.3%), ‘문화예술관련활동’(22.2%), ‘교과학습관련활동’(21.3%), ‘진로관련활동’(18.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교과학습관련활동’(42.0%) 비율이 초등학생(7.3%)과 중학생 (10.7%)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는 ‘스포츠관련활동’(55.3%), ‘문화예술관련활동’(35.5%), ‘봉사활동’(29.4%), ‘교과학습관련활동’(23.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과학습관련활동’(43.2%) ‘진로관련활동’(37.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학교 토요프로그램(중복응답)

참여프로그램만족수준: 참여하고 있는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65.8%)과 학부모 (66.3%)의 2/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초등학교(79.0%), 중학교(69.0%).

고등학교(50.3%) 순으로, 학부모는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2.3%),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68.9%),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56.8%) 순으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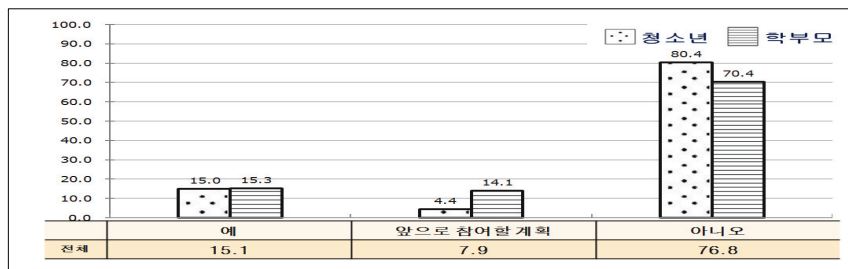


【그림 7】 학교 운영 참여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

(3)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수준

①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수준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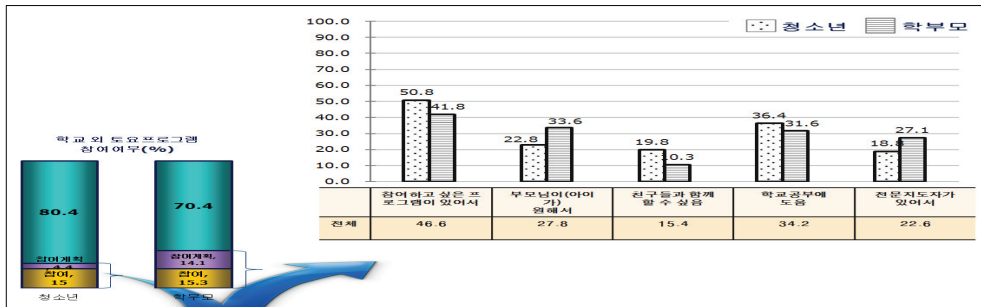
참여수준: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5정도(19.4%)의 청소년이 참여(15.0%) 또는 참여계획(4.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1/3정도(29.4%)가 자녀를 참여(15.3%) 또는 참여시킬 계획(14.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말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학교 밖 다른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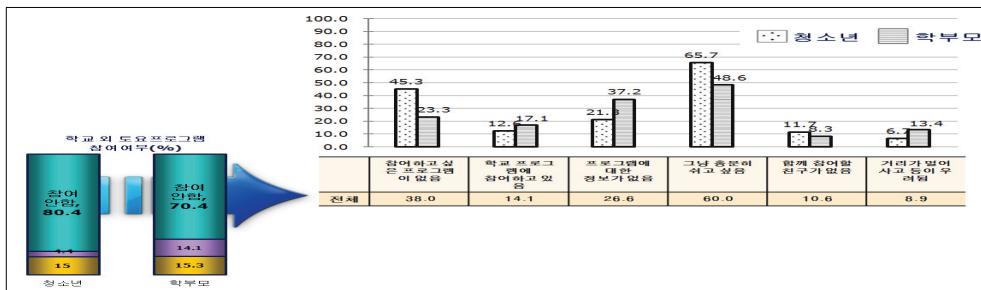
참여이유(중복응답):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50.8%)과 학부모(41.8%) 모두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0.8%),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6.4%), '부모님이 권유하셔서'(22.8%),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19.8%), '전문지도자가

있어서'(18.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23.7%),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3.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참여 이유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는 '참여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41.8%), '자녀가 원해서'(33.6%),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1.6%), '전문지도자가 있어서'(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12.3%),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12.8%),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1.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9】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참여하고 싶은 이유(중복응답)

불참여이유(중복응답): 참여하지(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65.7%)과 학부모(48.6%) 모두 '그냥 충분히 쉬고(쉬게 하고) 싶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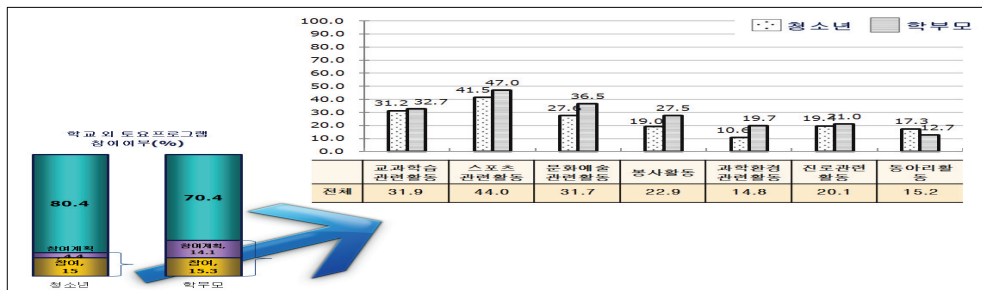


【그림 10】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불참 이유(중복응답)

② 학교 밖 운영 참여 주말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및 만족수준

참여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41.5%)과 학부모(47.0%) 모두 ‘스포츠관련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스포츠관련활동’(41.5%), ‘교과학습관련활동’(31.2%), ‘문화예술관련활동’(27.6%), ‘진로관련활동’(19.4%), ‘봉사활동’(19.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교과학습관련활동’(47.9%)과 ‘봉사활동’(34.5%), 초등학생은 ‘스포츠관련활동’(52.1%), 중학생은 ‘동아리활동’(23.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참여 선호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는 ‘스포츠관련활동’(47.0%), ‘문화예술관련활동’(36.5%), ‘교과학습관련활동’(32.7%), ‘봉사활동’(27.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과학습관련활동’(47.4%),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문화예술관련활동’(4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참여 또는 참여하고 싶은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중복응답)

참여프로그램만족수준: 2/3이상의 청소년(68.3%)과 학부모(70.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초등학교(75.4%), 중학교(67.1%), 고등학교(62.3%) 순으로, 학부모는 중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8.2%),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78.0%), 고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55.4%) 순으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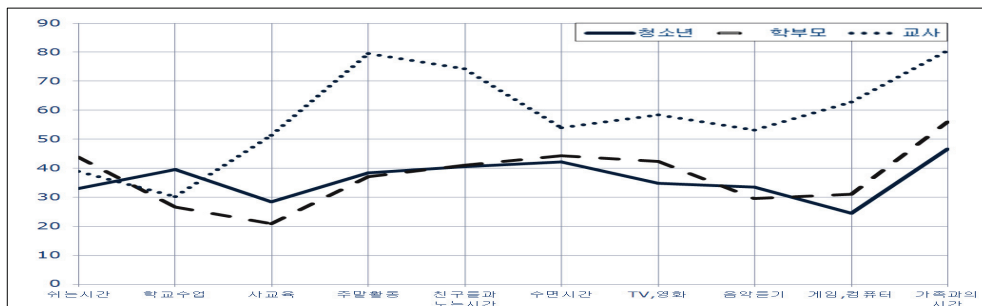
(4)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시간이용 실태

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전후 청소년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과 이후의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쉬는 시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학부모(43.7%), 교사(38.9%), 청소년(32.9%)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수업시간:** 학교수업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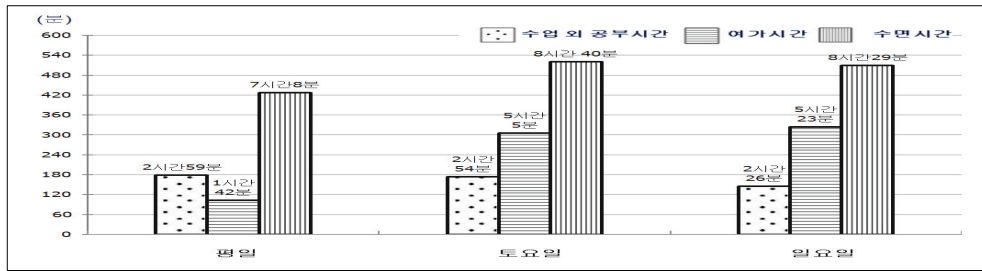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청소년(39.5%), 교사(30.1%), 학부모(26.6%)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밖 공부시간:** 학교 밖 공부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1.3%), 청소년(28.3%), 학부모(20.8%)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말활동참여시간:** 주말활동 참여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79.6%), 청소년(38.4%), 학부모(37.1%)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74.3%), 학부모(40.9%), 청소년(40.5%)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4.0%), 학부모(44.2%), 청소년(42.1%)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TV·영화 보는 시간:** TV·영화 보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8.4%), 학부모(42.3%), 청소년(34.7%)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음악 듣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53.1%), 청소년(33.4%), 학부모(29.5%)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임이나 컴퓨터 하는 시간:** 게임이나 컴퓨터 하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62.8%), 학부모(31.0%), 청소년(24.4%)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에 비해 교사(80.5%), 학부모(55.9%), 청소년(46.5%)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12】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전후 청소년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

②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평균 공부·여가·수면시간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에 대해 학교수업시간을 제외한 공부시간, 여가시간, 수면시간의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부시간:** 학교수업시간을 제외한 평균 공부시간은 평일 2시간 59분, 토요일 2시간 54분, 일요일 2시간 2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1시간 42분, 토요일 5시간 5분, 일요일 5시간 2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 7시간 8분, 토요일 8시간 40분, 일요일 8시간 29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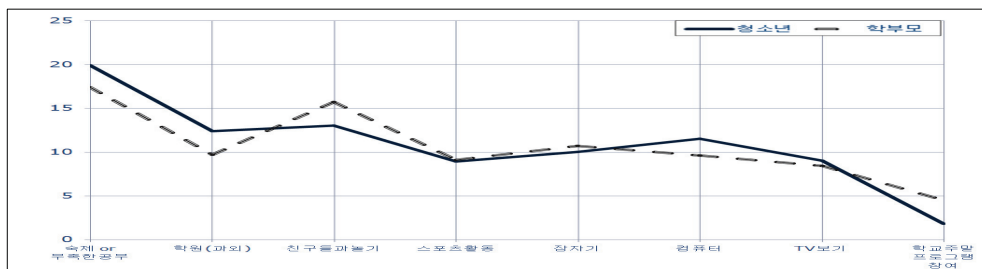


【그림 13】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평균 공부·여가·수면시간

(5)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활동 실태 및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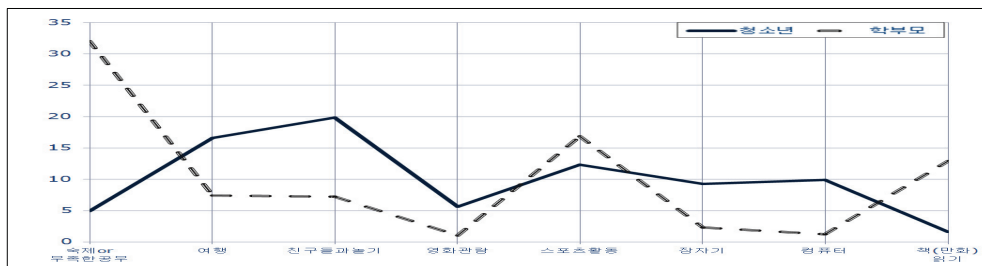
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1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1.8%)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0.3%)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

②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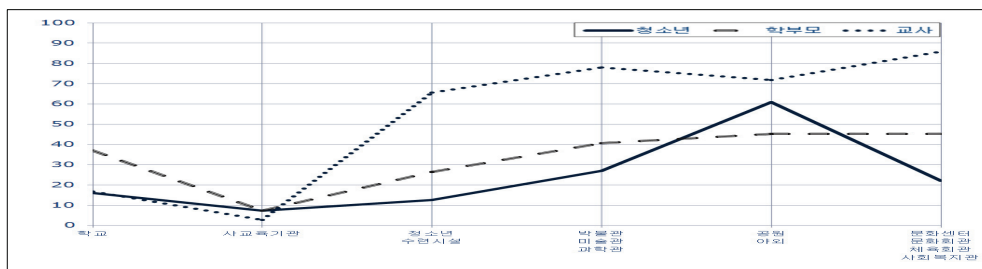
【그림 15】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활동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하길 바라는) 활동으로 청소년은 ‘친구들과 놀기’(19.8%)를, 학부모들은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32.0%)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으나 학교(2.7%)나 청소년수련시설(3.6%)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비율은 청소년(학교:0.7% 청소년수련시설: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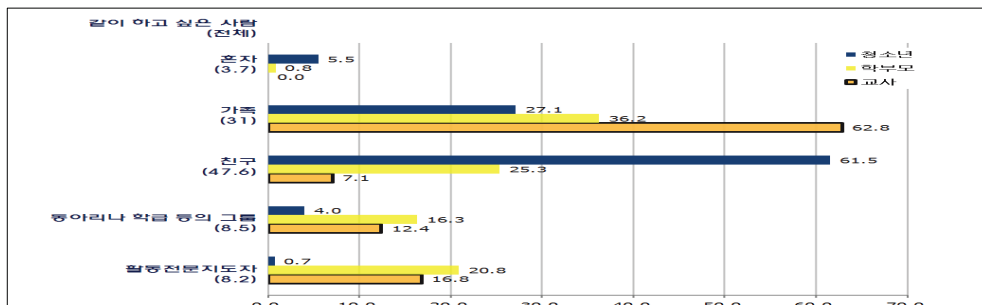
(6)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관련 요구

① 주말활동 장소 및 동행인물에 대한 선호도

주말활동을 하고 싶은 곳으로는 ‘공원·야외’(55.5%), ‘박물관·미술관·과학관’(32.9%), ‘문화센터·체육회관’(31.5%), ‘학교’(23.3%), ‘청소년수련시설’(18.6%), ‘학원 등 사교육기관’(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말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은 ‘친구’(47.6%), ‘가족’(31.0%),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8.5%), ‘활동전문지도자’(8.2%), ‘혼자’(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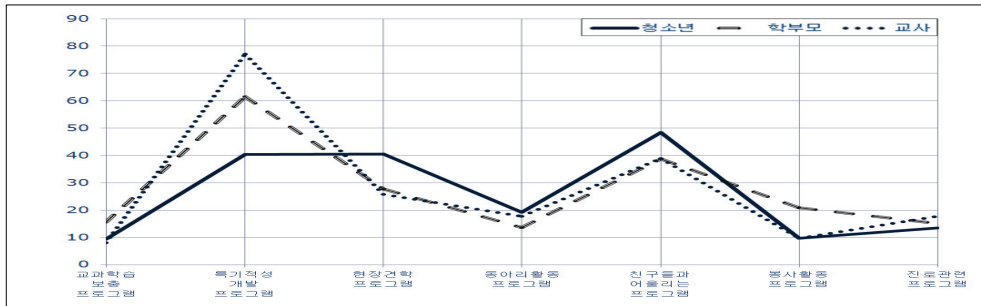
【그림 16】 주말활동 운영장소에 대한 선호도



【그림 17】 주말활동 동행인물에 대한 선호도

②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기 원하는 주말활동 프로그램(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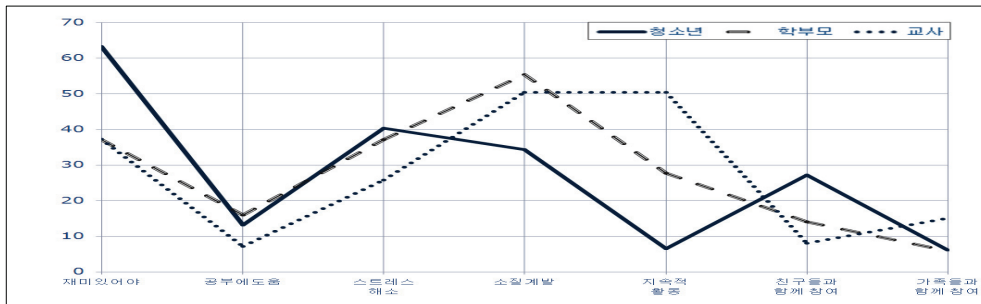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주말활동 프로그램은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48.5%),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44.8%), ‘여행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35.6%), ‘동아리활동 프로그램’(17.1%), ‘진로관련 프로그램’(14.0%), ‘봉사활동 프로그램’(13.6%), ‘교과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11.5%)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은 학부모와 교사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기 원하는 주말활동 프로그램(중복응답)

③ 주말활동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요인(중복응답)

주5일수업제가 전면실시된 후 주말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재미있어야 한다’(53.5%),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2.2%),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38.8%),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22.1%),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14.9%),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14.0%),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6.2%) 순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9】 주말활동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요인(중복응답)

3.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의 기본 전제와 방향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 필요: 주말 2일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에 대한 활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 시간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주5일수업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는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재구조화(4I's) 필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청소년활동정책은 주로 청소년활동 관련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 여건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주요 정책방향 별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①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활동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information) ②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필요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infrastructure) ③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활동기록 누적 및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며(incentive) ④ 부모, 학교, 사회가 지지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interconnection)으로 설정하는 청소년활동정책 재구조화(4I's)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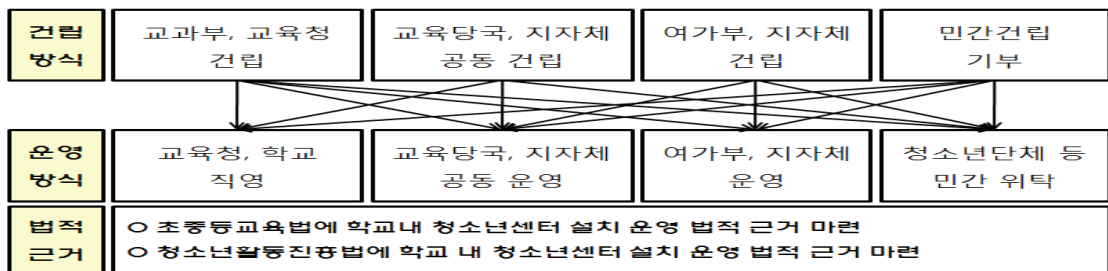
2)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소년활동정보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존의 청소년체험활동 정보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자인 학교, 청소년, 학부모들은 청소년체험활동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주말활동 정보제공사이트 신설·운영 또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간 주말활동정보 DB 공유(연동) 추진이 필요하다. 정보접근기회를 높이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 구축과 동시에 가칭 'Any click sac(검색see-신청apply-확인certify)'을 통해 대국민 홍보병행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통신 및 정보제공 환경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용 청소년활동 어플리케이션(스마트폰의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 활용한 지역사회활동자원(기관, 시설)정보 제공)개발도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청소년활동지원중추기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청소년활동지원 중추기관(중앙 단위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단위의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정보제공 확대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3)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청소년센터 건립·운영: 현재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주말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담당교사의 근무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이를 위한 학교 내 전문인력의 부재, 접근성 부족, 이동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의 원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와 지역사회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매개로서 학교 내 청소년활동 전담센터 건립·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20】학교 내 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방식

지역사회 민간참여를 위한 ‘청소년주말활동지원기관인증제’ 도입·운영: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제공자원 확대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기관 중 일정기준에 도달한 경우 기관을 인증하여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청소년주말활동지원기관인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인증은 시·도교육감(교육청) 또는 지역의 교육장(교육지원청)명의로 추진하는 안과 시·도지사(시·도청)가 인증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지도사 파견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함께 지역의 동네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사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과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모집형태에 따라 몇 가정에서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전문화 및 재정립: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재정립하는 일이다.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학교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과중할 정도로 많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사업의 고유한 가치와 규칙을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2가지 커다란 축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 학교 교육과정 일차영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체험(학습) 활동 중심 프로그램 - 학교교육의 가치와 방식 존중 - 시기, 내용의 조정에 초점 - 성과의 포트폴리오 작성	2)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사업의 가치를 지키는 고유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 - 청소년활동과 사업의 고유한 가치와 방식 존중 -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 청소년 스스로 성취 만족, 재미, 흥미
---	--

【그림 21】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전문화의 2축

4)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활동기록 누적 및 안전 확보

다양한 청소년활동기록의 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청소년활동기록의 체계적인 누적, 관리, 제공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핵심이 되므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활동기록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 개개인의 일원화 된 활동이력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정보의 통합적 제공 및 활동기록을 누적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활동 안전을 위한 공제회 확대 운영: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은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활동까지 보장 할 수 있는 공제회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2012년 3월 법령개정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및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일부활동(창의적체험활동 일부 및 방과후 학교, 기숙사 생활)만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조항의 개정을 통한 공제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대상의 청소년활동안전공제와 같이 학교 밖 활동을 보상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제회를 설립하여 인증받은

주말활동지원기관까지 확대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

5) 부모, 학교, 사회가 지지하는 활동기반 조성

교과와 연계한 청소년활동 구성·운영: 교과관련활동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학교급간 선호활동영역이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와 연계한 학교급별 차별화된 청소년활동을 구성·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주말활동 지원 강화: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주말활동 기회 확대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은 주말활동 기회제공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돌봄기능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기존 방과후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주말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학교급에 따른 주말활동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학업중단 및 홈스쿨링 청소년에 대한 주말활동지원도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추진체계정비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수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상호관계가 모호하거나 중첩되고 있으므로 관계 및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주말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관련법 개정 등):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주말활동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학교 내 청소년센터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이외 기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배치기관 확대, 청소년주말활동지원기관인증제 도입, 학교 밖 안전을 위한 공제회 설립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주말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내 청소년센터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과 청소년 주말활동지원기관 인증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두어야 하며 지역중심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말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청소년활동활성화지원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발표 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김 형 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 진 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의 거점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가능하게 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본 평가모형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본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평가모형의 이론적 적용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평가모형을 설계하며 모형에 대한 타당화와 시범적용을 통해 최종 평가모형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본 평가모형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론적 고찰
 - 기관평가의 개념 및 모형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사업 및 평가체계 분석
 - 1차년도와 2차년도 청소년활동시설 평가 연구의 시사점
 - 유관평가 사례 고찰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설계
 - 평가대상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특성 분석
 - 평가의 목적 및 주요 접근관점 수립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의 기본 틀 구안
 - 평가영역(대영역, 중영역) 설계
 - 평가지표 및 평가준거 개발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타당화
 - 평가 기본틀,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검증
 - 타당성 분석결과를 통한 평가모형 조정
 - AHP 분석을 통한 평가 가중치 확정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시범적용
 - 평가도구 및 분석방법 개발
 - 평가편람 개발
 - 시범평가 대상 청소년문화의 집 선정 및 시범평가실시
 - 시범적용 평가결과 및 평가수월성 분석
 - 최종 평가모형 확정
- 결론 및 정책제언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의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의 정책적 제언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책임자 워크숍,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적절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 등 타당성 검증, 가중치 분석을 위한 분석적 계층화법(AHP),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등이다. 본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헌연구
 - 기관평가 이론, 평가모형, 타 기관평가 사례 고찰
 -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및 운영 현황, 문제점 분석
 - 청소년문화의집 기존 평가사업 및 평가연구 고찰
 - 1차년도 및 2차년도 청소년활동시설 평가연구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정책담당자와의 정책협의회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타당성 검증 및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분석
 - 시설전문가, 청소년전문가, 평가전문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 및 가중치 조사
 -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적용
- 시설 운영책임자 워크숍 및 연구결과 활용 정책협의회

3. 주요결과

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설계

본 연구의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기본 틀 시안에서 대영역의 구획은 시설운영 매뉴얼에서 중요한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운영계획, 청소년 이용, 활동 프로그램, 조직 및 시설, 대외협력, 안전 및 발전노력의 총 6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중영역의 구획에 있어서는 운영계획 영역에 목표수립 및 계획, 청소년 이용 영역에 청소년 이용률, 청소년 참여, 청소년 동아리로 구분하였다. 활동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평가로 구분하였고, 조직 및 시설 영역에서는 조직 및 예산, 종사자, 근무 안정성, 시설 활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외협력 영역은 별도의 중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안전 및 발전노력 영역에서는 안전 및 위생,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기본 틀의 구획화는 평가 콘텐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절차적 맥락, 그리고 실제 평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다음은 평가모형의 기본 틀 시안을 평가 대영역과 평가 중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영역	중영역
- 운영계획	· 목표수립 및 계획
- 청소년 이용	· 청소년 이용률
	· 청소년 참여
	· 청소년 동아리
- 활동 프로그램	· 프로그램운영계획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평가
- 조직 및 시설	· 조직 및 예산
	· 종사자
	· 근무 안정성
	· 시설 활용
- 대외협력	· 대외협력
- 안전 및 발전노력	· 안전 및 위생
	·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2)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타당성 및 가중치 분석결과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이다.

중영역	타당성 점수	순위	평가지표	타당성 점수	순위
목표수립 및 계획	4.16	5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	3.72	2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	3.89	15
청소년 이용률	4.13	6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95	8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65	27
청소년 참여	4.20	1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4.06	3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	3.89	15
청소년 동아리	4.03	9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	3.90	13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3.38	30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	3.72	25
프로그램 운영계획	4.17	4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3.95	9
프로그램 운영	4.20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3.78	20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	3.34	31
프로그램 평가	4.04	8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3.63	29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3.73	23
조직 및 예산	3.88	13	시설운영 관련 규정	3.92	12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	3.63	28
종사자	3.96	12	운영책임자의 적절성	3.96	7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4.05	4
			직원의 자격증 수	3.75	21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	3.73	23
근무 안정성	4.05	7	직원의 근속연수	3.74	22
			직원의 복지수준	3.84	18
시설 활용	4.00	11	연간 시설 운영률	3.90	14
			법적 시설기준 준수	4.04	6
대외협력	3.85	14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3.87	17
			대외홍보 노력	3.84	18
안전 및 위생	4.17	3	안전 관리수준	4.10	2
			안전관리보험 가입	4.21	1
			위생설비 관리수준	4.04	5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4.03	9	운영발전 노력정도	3.92	10
			종합평가	3.92	10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용이성 분석결과이다.

중영역	평가지표	용이성점수	순위
목표수립 및 계획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	3.07	31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	3.29	30
청소년 이용률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78	9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65	18
청소년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3.77	11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	3.39	28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	3.68	15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3.53	24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	3.59	20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3.53	24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3.77	11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	3.64	19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3.36	29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3.44	27
조직 및 예산	시설운영 관련 규정	3.75	13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	3.66	16
종사자	운영책임자의 적절성	3.71	14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3.96	2
	직원의 자격증 수	3.89	5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	3.79	8
근무 안정성	직원의 근속연수	3.78	10
	직원의 복지수준	3.53	23
시설 활용	연간 시설 운영률	3.93	3
	법적 시설기준 준수	3.91	4
대외협력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3.66	16
	대외홍보 노력	3.58	21
안전 및 위생	안전 관리수준	3.87	6
	안전관리보험 가입	4.15	1
	위생설비 관리수준	3.82	7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운영발전 노력정도	3.51	26
	종합평가	3.54	22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 대영역, 평가 중영역,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분석결과이다.

대영역	중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순위
운영계획 (0.13)	목표수립 및 계획 (0.13)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0.47)	0.010	29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0.53)	0.011	28
청소년 이용 (0.23)	청소년 이용률 (0.28)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0.66)	0.057	4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0.34)	0.030	16
	청소년 참여 (0.4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0.56)	0.071	2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0.44)	0.056	5
	청소년 동아리 (0.30)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0.33)	0.030	15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0.23)	0.021	20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0.44)	0.041	10
활동 프로그램 (0.24)	프로그램 운영계획 (0.31)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0.31)	0.030	14
	프로그램 운영 (0.4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0.74)	0.100	1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0.26)	0.035	13
	프로그램 평가 (0.28)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0.51)	0.047	6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0.49)	0.045	7
조직 및 시설 (0.14)	조직 및 예산 (0.21)	시설운영 관련 규정(0.47)	0.020	22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0.53)	0.021	19
	종사자 (0.29)	운영책임자의 적절성(0.26)	0.015	25
		청소년지도사 배치율(0.36)	0.020	21
		직원의 자격증 수(0.16)	0.009	30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0.22)	0.012	26
	근무 안정성 (0.33)	직원의 근속연수(0.35)	0.023	18
		직원의 복지수준(0.65)	0.042	9
	시설 활용 (0.17)	연간 시설 운영률(0.54)	0.019	23
		법적 시설기준 준수(0.46)	0.015	24
대외협력 (0.11)	대외협력 (0.11)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0.64)	0.011	27
		대외홍보 노력(0.36)	0.006	31
안전 및 발전노력 (0.15)	안전 및 위생 (0.53)	안전 관리수준(0.34)	0.037	11
		안전관리보험 가입(0.41)	0.044	8
		위생설비 관리수준(0.25)	0.027	17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0.47)	운영발전 노력정도(0.62)	0.059	3
		종합평가(0.38)	0.036	12

3) 청소년문화의집 최종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다음은 평가모형 타당성 분석결과 및 시범적용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된 청소년문화의집의 최종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그리고 최종 배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영역	중영역 (% , 점수)	평가지표 (%)	배점 (100점)
1. 운영계획 (5.0)	1) 목표수립 및 계획 (100.0 / 5.0)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50.0)	2.5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50.0)	2.5
2. 청소년 이용 (30.0)	1) 청소년 이용률 (40.0/ 12.0)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60.0)	7.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40.0)	4.8
	2) 청소년 참여 (30.0 / 9.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60.0)	5.6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40.0)	3.4
	3) 청소년동아리 (30.0 / 9.0)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20.0)	1.8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40.0)	3.6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40.0)	3.6
3. 활동 프로그램 (20.0)	1)프로그램 운영계획 (20.0 / 4.0)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100.0)	4.0
	2)프로그램 운영 (60.0 / 12.0)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60.0)	7.2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40.0)	4.8
	3) 프로그램 평가 (20.0 / 4.0)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및 반영(100.0)	4.0
4. 조직 및 대외협력 (10.0)	1) 조직 및 예산 (50.0 / 5.0)	시설운영 관련 규정(60.0)	3.0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40.0)	2.0
	2) 대외협력 (50.0 / 5.0)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60.0)	3.0
		대외홍보 노력 (40.0)	2.0
5. 종사자 및 시설 (25.0)	1) 종사자 (40.0 / 10.0)	운영대표자의 적절성(30.0)	3.0
		청소년지도사 배치율(20.0)	2.0
		직원의 자격증 수(20.0)	2.0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30.0)	3.0
	2) 근무 안정성 (20.0 / 5.0)	직원의 근속일수(40.0)	2.0
		직원의 복지수준(60.0)	3.0
	3) 시설 활용 및 안전·위생관리 (40.0 / 10.0)	연간 시설 운영률(30.0)	3.0
		안전 관리 수준(40.0)	4.0
		위생설비 관리 수준(30.0)	3.0
6.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10.0)	1)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100.0)	운영발전 노력정도(50.0)	5.0
		종합평가(50.0)	5.0

4. 정책제언

1)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과 기능조정

– 지역사회의 범위가 개념적 정의나 적용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즉 가정, 학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삶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지역사회 자체가 청소년문화의집의 배경이고 본래의 속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시설로서의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간 이용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활동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 전문 시설로서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를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 핵심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 또는 전문가 주도에 의한 단순 체험형, 강좌-강습-견학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동아리 조직 또는 청소년의 제안, 기획, 운영과정의 참여를 통한 자율 활동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연계 기능은 기관과의 공동사업과 같은 기관중심 연계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인적연계를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함께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른 자원과 연계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일반 청소년들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요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시도 단위에서의 연계망 구축, 기관 대 기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수요자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소년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적합한 기관이나 인적자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기관으로서의 장점과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활동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은 청소년 문화중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시설 공간 설계 시 청소년 이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성격이 다른 기관이 함께 입주하여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간에 다른 특성을 가진 기관을 배치하는 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본래의

활동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서비스 전문성은 청소년 자유훈용-전용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생활권수련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 서비스연계를 뛰어넘어 위기청소년들에게 위기를 완충시킬 수 있는 사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위기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상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안전망이 시급하다. 이 안전망은 위기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위기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자원들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한 공간에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계층 간 통합교육이 필요하며, 통합교육의 장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이들이 계층 간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그 활동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은 갈등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 갈등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잃어버렸던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계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편안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안전한 거처의 제공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와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취해지지 않는다면 위기청소년들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위기와 맞설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듬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 발전을 위한 시설평가의 역할과 기능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는 2007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평가방법의 다양성, 평가절차의 체계성,

평가지표에 대한 세분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포함해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발전을 위한 시설평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주체의 문제인데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사업주체가 자주 바뀌다보니 평가에 대한 누적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하여 매년 평가지표 개발 시 유사한 개발절차를 중복하여 거치고 이전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평가사업 수행기관을 장기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2007년도와 2010년도 2회에 걸친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근거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 수업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이전의 청소년정보문화공간 모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모형도를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게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청소년문화의집 개념의 정립을 근거로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단순히 상호간 비교하는 상대평가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목적, 기능,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결과에 의해 최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와 예산지원을 동반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제고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위해 정부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인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인지 정확한 선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수련시설 평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평가수행에 대한 역할도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 평가와 민간시설 평가에 대한 목적과 방법, 인센티브 및 페널티부여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구분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평가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평가결과에 대한 환원과 개선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셋째, 지방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리에 대한 방안이 현재 전무한 실태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지자체가 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 운영상 기본적인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시군구로 법적 이양되어 있는 공공시설 관리에 대하여 일정부분 시도의 기본적 책무로 강화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 강화와 다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문화의집 평가 이후, 예산 부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우수청소년문화의집 기관표창 및 동판부착 이외의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평가의 목적이 설립시의 법적 취지와 역할의 달성여부, 그리고 시설운영발전에 있다고 한다면, 시설관계자의 국·내외 다양한 연수기회부여(최우수 시설 전원 해외연수기회부여), 격려금 지급(1억 원 내외), 시설 리모델링 우선지원(5억 원 이내), 담당 공무원 장관표창 및 해외연수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위해 지자체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와 우수한 평가결과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1) 전문 인력 선발 및 배치(최소한 청소년문화의집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의 전문가 배치가 필요함) 2) 시설환경의 개선 및 청소년의 자발적 이용여건 조성 3) 지역 특화된 우수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등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지자체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자체별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중심의 평가가 아닌, 활성화 차원에서의 전문가 컨설팅 사업 추진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시설평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요소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사항은 바로 지역의 청소년을 고려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하는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시설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지역 주민의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시설은 의미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의 활용과 이용의 친숙성은 시설운영의 가장 중요한 중점사항이 되어야 한다.

5. 평가편람 개발

1) 평가편람의 배경

이 평가편람은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위한 하나의 지침서로서 제작되었으며, 2012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연구과제인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 평가편람은 2010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사업에서 적용되었던 평가편람 및 사업결과를 토대로 관련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1차 평가모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전국의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200여명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개발한 평가모형(안)을 토대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확정되었다.

2) 평가의 목적

이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의 체계적 관리와 시설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주요 기반으로써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3) 평가편람의 기본 틀

평가편람은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영역의 구분과 가중치, 주요 평가지표별 평가의 방향, 평가자료, 평가방법, 평가기간, 평점기준, 평가요소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6개 대영역, 13개 중영역, 2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평가편람(안)

1. 운영계획

■ 1-1. 목표수립 및 계획

▶ 지표 1-1-1.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적절한 목표와 역점사업을 설정하고 중·장기 관점의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문화의집 발전계획서, 중·장기계획서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
- ③ 평가기간 : 평가 전년도까지의 3년간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중·장기계획 없음.
 - 미흡(2) : 중·장기계획 미흡한 수준에서 수립
 - 보통(3) : 중·장기계획 형식적 수준에서 수립
 - 우수(4) : 중·장기계획 일반적 수준에서 수립
 - 매우 우수(5) : 중·장기계획 체계적 수준에서 수립
- ⑤ 평가요소 :
 - 미흡 등급의 '미흡한 수준'이라 함은 1~2쪽 내외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서를 의미함.
 - 보통 등급의 '형식적 수준'이라 함은 중·장기계획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전략, 내용 등)은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 문화의집 특성과 관계없이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우수 등급의 '일반적 수준'이라 함은 중·장기계획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전략, 내용 등)은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이 문화의집 특성에 적합한 수준에서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매우 우수 등급의 ‘체계적 수준’이라 함은 계량화되고 성과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한 비전 설정, 실제 예산반영 등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함.
- 문화의집 위탁운영을 위한 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계획서도 인정함.
- 평가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최근 계획서를 인정함.
- 직영 운영 시설의 경우도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별도로 시설 자체적인 발전계획(위탁기간 내)을 수립하여야 함.

제출 증빙자료 1-1	1. 중·장기 발전계획서 2. 2012년 연간 운영계획서 (최근 개관 시설인 경우 개관 시점 연간운영계획서 제출)
현장평가 확인자료	1. 제출 증빙자료 사실여부 및 내용 확인 2. 관련 회의 개최 실적 자료

▶ 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매년 적절한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운영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시설운영에 적용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연간운영계획서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조사표 검토, 현장방문 평가(자료확인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평가 전년도 1년간
 - ④ 평점기준 : 5단계 평정 척도
 - 매우 미흡(1) : 연간운영계획서 없음.
 - 미흡(2) : 연간운영계획서 미흡한 수준에서 수립
 - 보통(3) : 연간운영계획서 형식적 수준에서 수립
 - 우수(4) : 연간운영계획서 일반적 수준에서 수립
 - 매우 우수(5) : 연간운영계획서 체계적 수준에서 수립
 - ⑤ 평가요소 :
 - 미흡 등급의 ‘미흡한 수준’이라 함은 1~2쪽 내외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서를 의미함.
 - 보통 등급의 ‘형식적 수준’이라 함은 연간운영계획서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프로그램 구성, 예산 등)은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 문화의집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우수 등급의 ‘일반적 수준’이라 함은 연간운영계획서에 필수적인 항목(예 : 목표, 전략, 프로그램, 예산, 시설관리 등)을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이 문화의집이 처한 대내외 환경에 적합한 수준에서 수립된 계획서를 의미함.
 - 매우 우수 등급의 ‘체계적 수준’이라 함은 전년도사업 평가, 설문조사,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반영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 목표를 수립한 경우를 의미함.
- ※ 제출 증빙자료 1-1 자료로 대체

※ 나머지 평가지표에 대한 편람내용은 중략함

발표 4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안 선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희 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 진로준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결정과정은 단순히 과학적인 데이터에만 의거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당 사회에서 선호되는 가치,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정당성에 관한 현실적 판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된다(Head, 2009: 13). 하지만 엄밀한 연구를 통해 생산된 양질의 데이터는 근거기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Banks, 2009; Segone & Pron, 2008). 청소년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딜레마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시의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Nico, 2009).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 사회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청소년의 모습에 대한 기대 범위에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벗어난다는 뜻인 동시에 다른 사회 청소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청소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타당한 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시간의 변화나 하위 집단 별 양상을 읽을 수 있는 국내 데이터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서 외국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은 대학입시를 위한 무한경쟁 구도에 의해 상당 부분 규정되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과열된 학업경쟁은 더 이상 바꾸기 어려운 “정상(norm)”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기 경험이 대학진학 준비에 불균형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로 인해

간과되는 부분들이 이후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일한 코드에 종속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의 한국청소년들 간 비교는 이들의 생활실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청소년 관련 부처, 학계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2009; 김형주·최인재·임지연, 2008). 청소년관련 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김기현·김창환, 2011), 설문도구 구축과 표본선정 등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다양한 영역의 사회조사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청소년의 상대적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생산하여 공개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OECD이며,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조사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조사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이 데이터 수집과 공개를 위한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시의성 있는 연구에 활용하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정보 수집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를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OECD, 2009).

또한 참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조사가 가능한 영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조사내용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렇듯, 어느 특정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요구로 대두되는 영역에 대한 조사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아우를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관에서 제공하는 2차 데이터(secondary data)를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우, 연령대 선정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된 연령대를 상정해야 하는 정책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비교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는 장점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특히 청소년의 행동과 문화는 그 사회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의 전반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학업경쟁의 과열화, 학교폭력, 유해매체 사용,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이질적 집단에 대한 배척 등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들이 뜨거운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사회 전체의 병리현상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해 나갈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Nico, 2009). 이와 같이 청소년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성인기 이행의 지연과 자살의 증가를 비롯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 표출과 저항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초고속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강화의 필요성도 모든 국가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개발은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조사를 통하여 한국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한다. 본 청소년생활실태 조사는 청소년생활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영역 중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더불어 국제비교연구 주제로서 타당하고 또한, 시의적절한 조사영역을 도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다. 조사영역은 국내·외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의견조사와 비교조사 대상 국가의 청소년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한 부분은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영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조사 영역 도출을 위해 먼저 기존의 청소년 관련 국내·외 통계조사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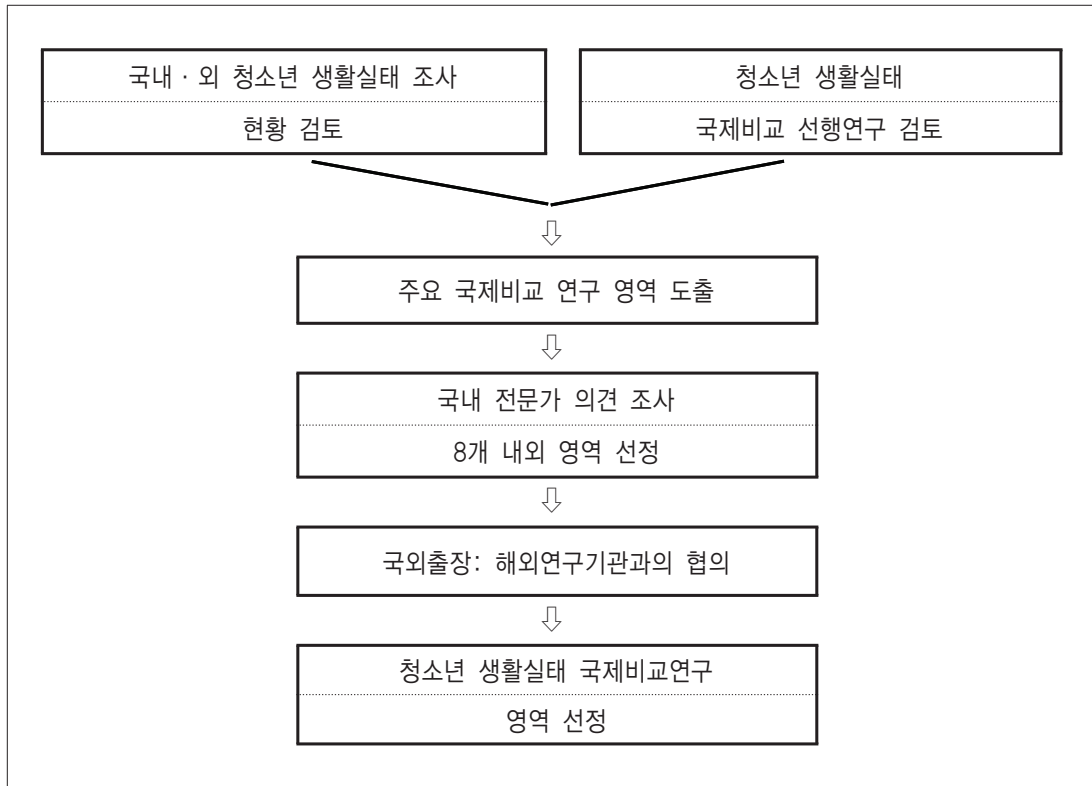
그동안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아동·청소년의 통계자료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핵심지표 영역체계를 구축한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 영역체계」(김기현·김창환, 2011)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조사인 General Social Survey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조사영역을 정리한 후 비교·검토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청소년관련 학계(청소년관련학과,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포함한 학계전문가 22명)와 정책전문가(정책담당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4명) 총 26인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청소년생활실태와 관련한 국제비교조사 영역으로서 중요도, 시의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조사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 ‘친구/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심리·정신건강’, ‘정보통신’, ‘참여’, ‘폭력’, ‘진로준비’가 주요 조사영역으로 선정되었다. 제비교조사 영역 도출은 【그림 1】에 나타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중국, 일본, 미국³⁾) 협력연구기관과의 협의회⁴⁾에서도 관련 연구기관 모두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를 국제비교조사의 최우선 주제로 선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는 청소년의 진로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 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청소년들의 상대적 입지를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3) 본 연구의 1차년도 비교조사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이다. 먼저 여러 기준에서 비취볼 때 미국과 일본은 서구와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주요 선진국이며 청소년영역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연구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 고학력화,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청소년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두 국가 청소년의 모습은 우리 청소년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에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중국청소년의 생활실태에도 큰 격차가 예상된다(Fu, 2005; Luo, Yang, Lei, Wang, Papasoam & Deng, 2009). 교육기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교육-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불일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농촌의 해체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혼란과 도농 간 격차 등 한국이 과거에 심각하게 경험했거나 현재까지도 속제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과의 비교대상으로서 가치를 높인다.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통해 많은 혼란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사례가 현재 중국의 상황에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중국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남북통일 후 북한청소년들의 모습에 대한 예측과 준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4)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국제비교연구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연구기관 연구진과의 전문가협의회를 가졌다. 2012년 7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한·중·일 국제비교조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로드아일랜드 대학(University of Rhode Island) 인간발달가족학과(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의 후원으로 로드아일랜드 대학 교수진을 비롯하여 본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국아동청소년연구센터(China Youth and Children Research Center), 일본청소년연구원(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진들이 향후 국제비교조사 연구 방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가졌다.



【그림 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2)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 설문조사

(1) 설문내용

본 연구의 조사영역으로 결정된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와 관련하여 본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진로·직업의식’, ‘진로·직업경험’, ‘진로·직업준비’, ‘진로·직업역량’, ‘아르바이트’, ‘구직 및 취업 경험’, ‘사회심리적 요인’의 7가지 영역이며, 이외에 다양한 개인 및 가족의 배경변인들이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영역 및 하위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청소년진로준비에 대한 본 조사의 설문문항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의견조사 및 해외연구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만 19세~24세

청소년 총 200여명이었으며, 이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 응답에 요구되는 시간의 적절성, 한·중·일·미 4개국 언어로의 설문지 번역의 정확성, 번역된 설문지에 대해 4개국 청소년 응답자가 내용을 동일하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는 표현, 설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응답 저항이 나타나는 항목 등을 파악하였고, 설문 문항연결 구조와 전체 설문 진행과정(특히 온라인 조사의 특수성 감안) 등을 점검하였다.

표 1 **설문조사 영역 및 하위 조사 내용**

영역	하위 조사 내용	
진로 · 직업의식	진로 · 직업 가치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진로 · 직업태도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 · 직업경험	진로 · 직업교육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진로 · 직업준비	진로준비행동	
진로 · 직업역량	자기이해	
	진로 · 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이유	
	아르바이트 경험의 도움 여부	
구직 및 취업 경험	구직 및 취업경험 여부	
	구직 시 어려움 경험 이유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전망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이유	
	학력수준에 맞는 구직이 어려울 경우 대처 행동	
사회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현재 고민거리	
기타	현재 상황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본인의 기대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직업	
	고등학교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국제비교조사로서의 비용과 시간 절감 측면, 그리고 변화하는 조사환경에서의 면접조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인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조사의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별 인터넷 보급률 및 모집단인 온라인 패널이 실제 인구비와 다르며,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온라인 패널의 거주지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미성년자 패널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어 대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설계 시 각 나라의 세부 인구비에 맞추어 성별, 연령, 지역별 층화를 세분화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경우 층별로 온라인 패널의 모집단이 충분하지 않아 특정계층 및 특정 성향의 표본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의 목적이 국가 간 비교이므로 조사대상을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대상은 각 국가별 전체 해당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성, 연령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지역별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세부 지역 및 도시 층화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할당 변수로 도시규모를 추가하여 결과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의 할당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설계와 표본추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대상과 표본크기**

구분	내용
조사대상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만19세~24세 이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으로 남녀 성별/연령별 균등 배분
표본 크기	총 6,000명 - 한국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 중국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 미국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 일본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조사 방법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조사(Web Survey)
조사 기간	- 2012년 10월 19일(금) ~ 2012년 11월 2일(금)

3. 주요 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청소년 조사대상은 총 6,011명으로 한국에서 1,502명, 중국에서 1,503명, 일본에서 1,504명, 미국에서 1,502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4개국 모두 남, 여 각각 50%의 비율이었고, 연령별로도 만 19세부터 24세까지 거의 동일한 인원(250명~251명)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한국의 경우 고졸이하의 응답자가 165명(11%)이었고, 전문대 재학·졸업이 288명(19.2%), 4년제대학 재학이상인 조사응답자는 1,049명(69.8%)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도 유사한 교육수준 분포를 보였는데, 중국의 경우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인 응답자는 134명으로 8.9%, 전문대 재학·졸업은 331명(22%),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은 1,038명으로 약 69%였다. 일본청소년의 경우 고졸이하가 324명으로 21.5%로 나타나 한·중·일 3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대 재학·졸업자는 96명으로 가장 낮은 인원수였으며,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인 응답자는 가장 많은 1,084명으로 약 72%에 달했다. 미국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한·중·일 3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이하와 전문대재학·졸업이 각각 435명(29%), 434명(28.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인 경우는 633명(42%)에 불과해, 한·중·일 3개국과 비교했을 때 조사응답자의 현재 교육수준은 가장 낮았다.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면, 한·중·미 3개국은 65.8%~71.8%로 유사한 비율을 보인데 비해, 일본청소년은 83%인 1,248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4개국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대상자가 학생인지 혹은 취업중인지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 중 1,124명이 학생이라고 응답해 전체 4개국의 청소년 중 가장 높은 학생비율(74.8%)을 보였다. 한국청소년 중 취업중이라는 청소년은 204명(13.6%), 취업준비이거나 무직인 상태는 174명(11.6%)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 중에서는 584명인 38.9%가 취업상태였고, 절반이 약간 넘는 829명(55.2%)이 학생, 90명인 6%만이 취업준비 중이거나 무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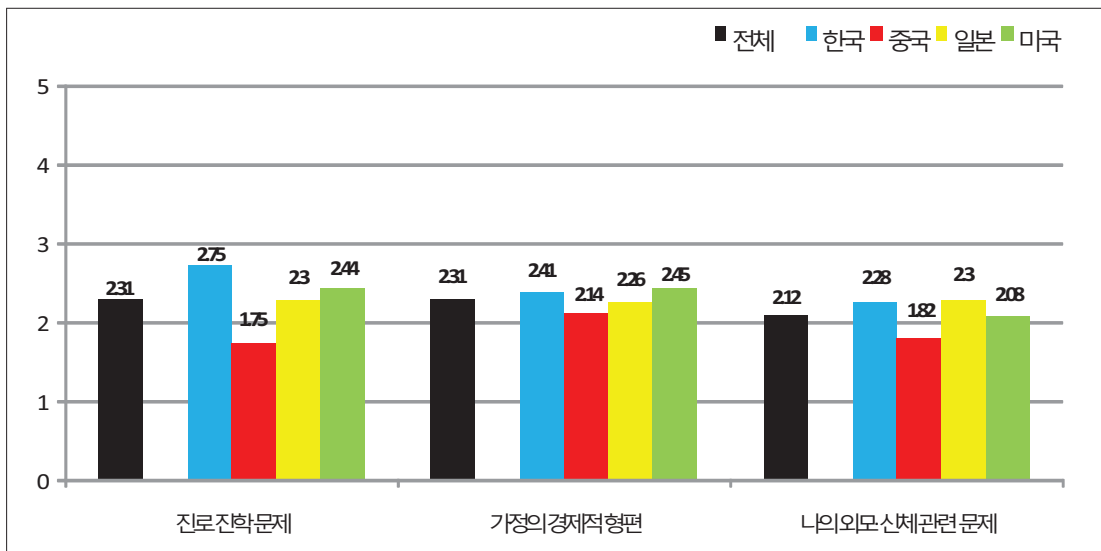
조사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청소년 중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88명으로 32.5%였고, ‘중간’이라는 응답은 354명(23.6%)이었다. ‘낮은 편’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660명(43.9%)으로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4개국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일·미 3개 국가의 분포는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대체로 37%~39% 수준, ‘중간’ 25.8%~28%,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33.1%~34.8%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

(1) 사회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중·일·미 청소년 중 중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미국, 한국, 일본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미국은 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4개국 모두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자아통제감도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미국, 일본 청소년의 순으로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자아통제감이 더 높았고, 한·중·일 청소년은 교육수준과 고교 재학 시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는 ‘진로·진학문제’였으며,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진학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자청소년,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청소년, 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일수록 고민이 가장 컸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여자청소년, 그리고 4개국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청소년의 고민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로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를 기준으로 평균값 비교

【그림 2】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2) 진로지도 경험

다양한 진로지도 내용 중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 경험이 가장 높았고(96.5%), 그 다음은 학과 및 학과 안내(93.7%), 진로상담(90.6%), 진로관련 강연(89%), 직업체험(80.8%)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가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진로지도 내용을 보면, 중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6.8%)를, 일본청소년은 진로상담(94.8%)을, 미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1.4%)를 경험한 비율이 높아, 각 국가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진로지도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한 진로지도 만족도를 보면, 한국과 중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각각 M=3.24, M=3.3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일본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M=3.02), 미국청소년은 ‘직업체험’(M=3.55)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각 진로지도 항목에 대한 4개 국가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미국청소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의 만족도가 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직업체험과 직업상담도 미국과 중국청소년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3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3.14 (.943)	3.06 (.900)	3.21 (.872)	2.93 (.838)	3.38 (1.108)	53.015*** (ab, ac, ad, bc, bd)
학교 및 학과 안내	3.19 (1.012)	2.97 (.974)	3.30 (.913)	3.02 (.872)	3.51 (1.198)	85.144*** (ab, ad, bc, bd)
진로관련 검사(적성, 흥미 검사 등)	3.25 (.999)	3.24 (.965)	3.38 (.939)	2.93 (.834)	3.48 (1.178)	77.014*** (ab, ac, ad, bc)
직업체험	3.13 (1.107)	2.90 (1.063)	3.34 (.967)	2.71 (.934)	3.55 (1.237)	165.634*** (ab, ac, ad, bc, bd)
진로상담	3.14 (1.025)	2.99 (.997)	3.32 (.955)	2.97 (.936)	3.33 (1.173)	51.456*** (ab, ad, bc)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중국·미국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중·미 청소년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경영/관리직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직업이고,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일 때,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

(3)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및 성공요인

한국청소년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5가지 범주(외적보상, 내적보상, 환경적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사회적 보상) 중 ‘내적보상’과 ‘환경적 보상’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외적 보상’, ‘사회적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특히, 진로관련 강연과 직업체험,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한국청소년은 ‘외적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고,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내적 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았다. 또한 ‘자율·창조적 보상’과 ‘사회적보상’은 진로관련 강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는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중 구체적으로 직업, 진학 등 진로와 관련한 대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가 많을수록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중요도가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에 대한 중요도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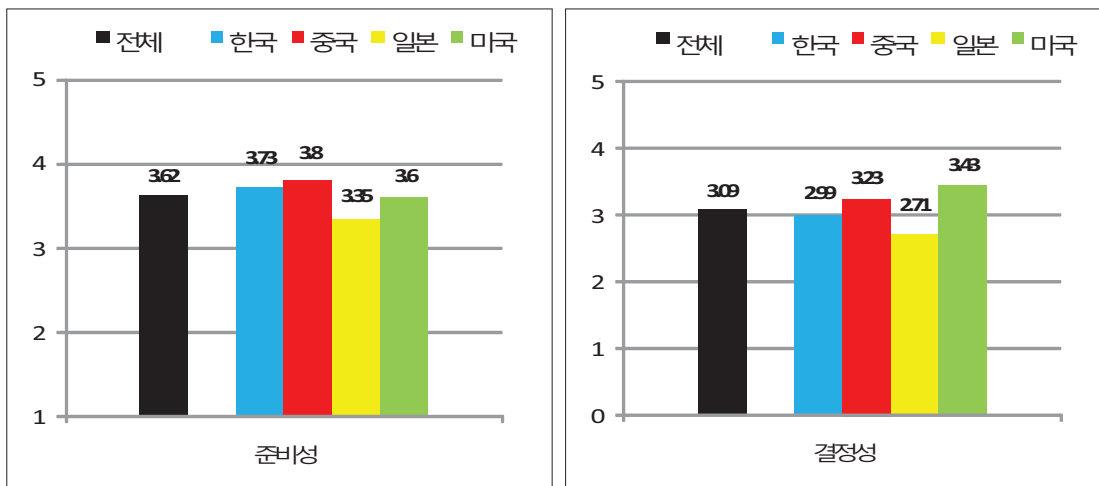
한·중·일·미 청소년 중에서 한국청소년이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이었고, ‘가정배경’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으로 한·일청소년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중국청소년은 ‘인맥’, 미국청소년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업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중요도 순위 비교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인맥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2	뚜렷한 목표의식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좋은 성품
3	근면함과 성실성	좋은 성품	근면함과 성실성	자기계발
4	자기계발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인맥	근면함과 성실성
5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뚜렷한 목표의식	뚜렷한 목표의식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6	좋은 성품	근면함과 성실성	좋은 성품	뚜렷한 목표의식
7	인맥	자기계발	운이나 요행	인맥
8	돈(자본)/재산	돈(자본)/재산	자기계발	학벌/학력
9	운이나 요행	학벌/학력	돈(자본)/재산	돈(자본)/재산
10	학벌/학력	가정배경	가정배경	운이나 요행
11	가정배경	운이나 요행	학벌/학력	가정배경

(4) 진로 · 직업태도

진로 · 직업 태도는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응답자 전체 청소년, 그리고 4개국 청소년 모두 준비성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 ‘준비성’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자신의 흥미나 성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거나, 자신의 진로관련해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중국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M=3.80),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M=3.73), 미국청소년(M=3.60), 일본청소년(M=3.35)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이미 결정을 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정성’에 대해서는 미국청소년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M=3.43), 그 다음은 중국청소년(M=3.23), 한국청소년(M=2.99), 일본청소년(M=2.71) 순이었다.



【그림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준비성과 결정성(평균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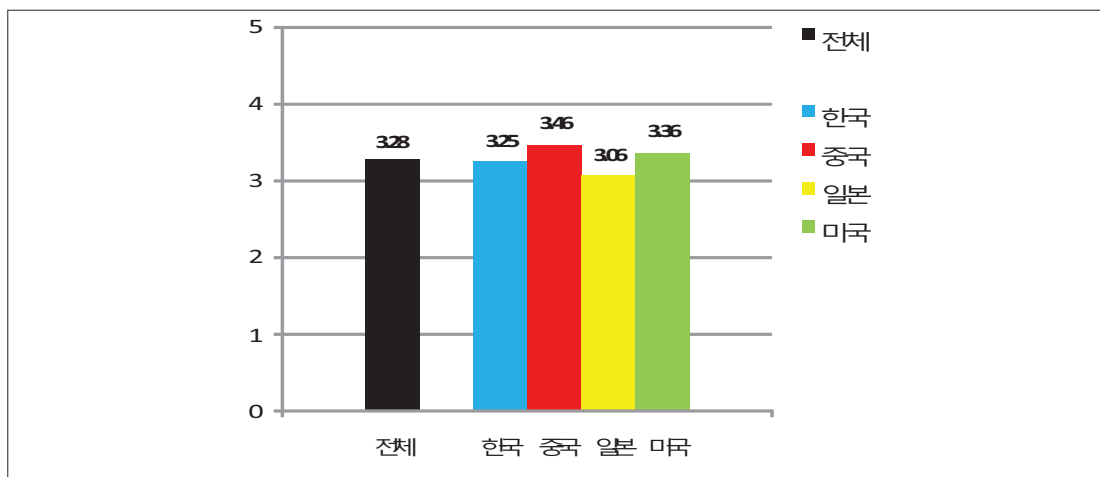
확신성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청소년의 경우 향후 직업에 대한 성공 확신이나 자신감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 때 직업세계의 성공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이 낮게 나타났다.

고교 재학 시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은 향후 진로 · 직업 선택의 결정성이 더 높았고, 특히 한국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확신성이 더 낮았다. 가정의 진로지도 정도는 진로 · 직업 태도 중 ‘결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 정도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관련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직업 역량

진로준비행동으로서 한국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나 책, 동영상, TV프로그램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 받거나 관심 있는 직종의 종사자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인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보면, 4개국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교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값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 진로지도의 만족도와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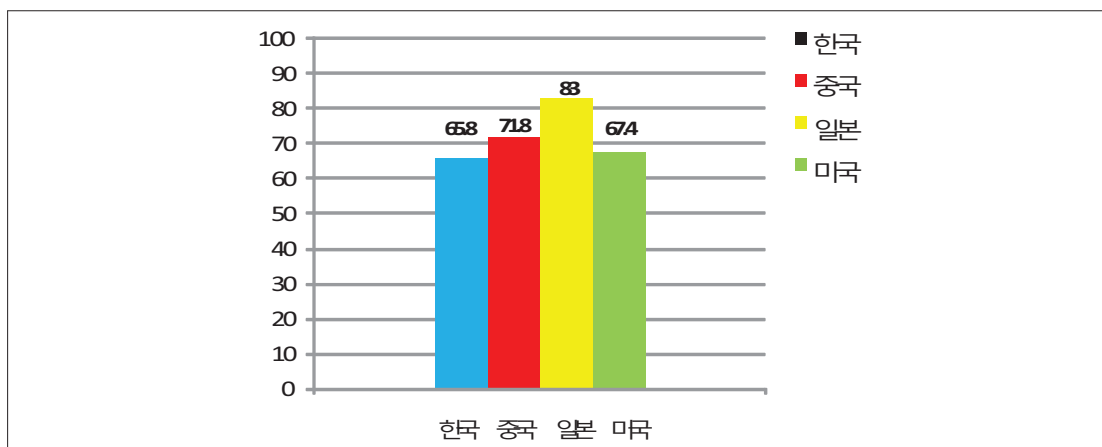
【그림 4】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평균값) 비교

진로·직업 역량에 대해서 보면,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진로·직업 역량 중 ‘자기이해’와 ‘진로·직업 지식’ 보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4개국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직업 역량이 높았다. 진로·직업 역량 중 ‘진로·직업 지식’은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경험(진로관련 강연, 학교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을 한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은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6)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한국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는 한국·일본 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해서’, 중국청소년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국청소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직업태도 중 준비성과 독립성에서, 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 역량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림 5】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긍정 응답

청소년들의 구직 및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은 32.6%로, 미국청소년 70.3%, 중국청소년 63%, 일본청소년 40.2%인데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국청소년은 구직 및 취업 시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았다.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에 대해 더 높은 응답수준을 보였다. 한·중·일 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취업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 중 현재 취업준비·무직인 청소년은 현재 학생인 청소년에 비해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낮게 나타났다.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미국과 일본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이내 희망일자리에 취업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한·중·일 청소년은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미국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 한·중·일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는 응답이, 미국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청소년 중에는 여자청소년, 학업성적이 중·하위권인 청소년,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이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1) 후기청소년의 진로교육 요구파악 및 진로교육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연구대상인 만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들 90%가 진로와 진학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진로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에서 한국청소년들이 중국이나 미국의 청소년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2009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태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최인재 외, 2009), 진로준비 태도, 행동, 역량 수준에 있어 후퇴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진로지도 유형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타 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검사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직업체험을 한 비율은 낮아 현장에서의 직업 및 진로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학업성취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특히 한국과 중국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의 수준이 낮고, 진로준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강화하여 적성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로와 삶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특히 한국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발달과 진로준비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진로나 직업 분야의 직업인을 멘토로 연결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진로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4)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 강화

가정에서 부모와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는 정도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학교의 진로교육보다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을 갖거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족할 경우, 자녀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진로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학교의 진로교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자녀의 진로지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하다.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등을 활용한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 의미 있는 진로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대상 창업교육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개국 중 한국청소년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업을 자신이 희망하는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진로라고 보는 시각도 경계해야

하지만, 한국청소년들이 창업을 의미 있는 진로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창업에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 창업에 필요한 기초역량 함양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청소년기부터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세미나자료집 13-S11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지원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망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인 쇄 2013년 4월 17일

발 행 2013년 4월 1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